
碩士學位請求論文

初等學生의 人性形成에 影響을 주는
社會的 要因에 關한 研究

- 濟州道 初等學校 6學年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許 正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李 守 培

1997年 8月

初等學生의 人性形成에 影響을 주는 社會的 要因에 關한 研究

- 濟州道 初等學校 6學年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許 正 勳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 專攻

提出者 李 守 培

李守培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審查委員長
審查委員
審查委員

梁 邦 柱
利 亨 奎
安 祖 範



[국문 초록]

초등학생의 인성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 수 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지도교수 허 정 훈

본 논문은 가정의 물리적·심리적 환경 작용 변인, 그리고 학교와 사회의 심리적 작용 변인 등 사회적 요인들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인성형성(윤리·도덕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하고, 그들간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여 구명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지향해야 할 의식과 행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성세대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을 고양시켜 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고, 이러한 가설의 검증을 통하여, 윤리·도덕 의식이 강하게 각인되는 시기이면서도 행동수정이 용이한 초등학교 6학년생의 인성형성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가〉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성별, 학교 소재지,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학력, 직업, 생활 정도, 가족 구조(핵가족화), 부모 맞벌이 여하에 따라 그들이 지닌 인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나〉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윤리·도덕 의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다〉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윤리·도덕 의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3가지의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 i)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의 유의미 여부, ii)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의 유의미 여부, iii)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의 유의미 여부, 그리고 iv) 6학년생들의 윤리·도덕 의식 등을 분석해 보았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인성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여러 요인을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부모의 과잉보호 내지 대화의 결핍으로 낙담하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주의적일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적어도 6학년초까지는 그들의 인성이 매우 온건하고 긍정적이며 기성세대들이 바라는 윤리·도덕관에 상당히 접근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6학년생들은 아직 의지가 확립되지 못해 습관에 약하고 한 두 번 이탈로 고질화되기 쉬운 약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인성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변인은 대화와 관용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상호 관심,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지대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인성형성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환경 변인은 가정이었으며, 아직까지는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사회적 제반 요인이 인성형성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본 논문은 199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目 次

國文抄錄	i
目 次	ii
表 目 次	iii
I. 緒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과 內容	3
3. 研究의 限界	6
II. 理論的 背景	7
1. 人性教育과 人性形成	7
2. 靑少年의 意識과 行動에 관한 分析	26
3. 假 說	32
III. 研究 方法	34
1. 調查對象 標集	34
2. 測定 道具	34
3. 資料 處理	39
IV. 結果 및 解釋	40
1. 家庭의 物理的 環境 變因의 檢證	40
2. 家庭의 心理的 作用 變因의 檢證	46
3. 학교와 사회의 環境 作用 變因의 檢證	51
4. 6學年生들의 倫理·道德 意識에 대한 分析	55
V. 要約 및 結論	70
1. 要 約	70
2. 結 論	75
參考文獻	79
Summary	84
附 錄	87

表 目 次

〈表 1〉小家族 環境과 大家族 環境이 兒童에게 미치는 影響 比較	15
〈表 2〉調査對象 집단의 學生數	34
〈表 3〉初等學校 6학년생들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주는 社會的 變因 尺度	35
〈表 4〉가정의 物理的 環境 變因	36
〈表 5〉家庭의 心理的 作用 變因	37
〈表 6〉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因	38
〈表 7〉研究 對象者の 倫理·道德 意識	38
〈表 8〉가정의 物理的 環境의 下位 變因別 頻度	40
〈表 9〉가정의 物理的 環境 變因에 따른 性別差 현황	41
〈表 10〉사회적 변인의 各 領域別 變因에 대한 가정의 物理的 環境 下位 變因과의 관계	42
〈表 11〉가정의 物理的 環境 하위변인과 가정의 心理的 作用 하위변인과의 相關關係	43
〈表 12〉학교와 사회의 心理的作用 變因과 가정의 物理的 環境變因과의 相關關係	44
〈表 13〉가정의 物理的 環境變因과 초등학교 6학년생의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	45
〈表 14〉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에 따른 性別差 意味度	46
〈表 15〉初等學校 6學年生들의 倫理·道德 意識의 性別差 意味度	48
〈表 16〉初等學校 6學年生들의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的 性別差	48
〈表 17〉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과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와의 相關關係	49
〈表 18〉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과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	50
〈表 19〉학교와 사회의 心理적 작용 변인에 따른 性別差 相關關係	52
〈表 20〉학교와 사회의 心理的 作用 變因과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	52
〈表 21〉학교와 사회의 心理的 作用 變因과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와의 相關關係	54
〈表 22〉家庭에서 家族들끼리의 對話 시간	55
〈表 23〉父母의 子女에 대한 關心 事項	56
〈表 24〉父母의 子女에 대한 將來 職業	56
〈表 25〉省墓의 경험과 先墓의 소재지를 아는지의 여부	57
〈表 26〉省墓의 경험과 先墓의 소재지를 모르는 理由	57
〈表 27〉부모님께 바라는 注文 事項	58
〈表 28〉부모님에 대한 自矜心	58
〈表 29〉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 있는 理由	59
〈表 30〉부모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理由	59
〈表 31〉담임 선생님께 대한 주문 사항	60

〈表 32〉 자기의 言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분	60
〈表 33〉 우리들 주위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분	61
〈表 34〉 그 분을 가장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이유	61
〈表 3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본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사람	62
〈表 36〉 그 분을 가장 본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이유	62
〈表 37〉 자기의 素質과 適性을 기초로 할 때의 장래 직업	63
〈表 38〉 祖父母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생각	64
〈表 39〉 장차 부모님을 모셔서 사는 일	64
〈表 40〉 放課 後나 일요일 등 자기의 餘暇時間 보내는 일	65
〈表 41〉 용돈을 쓰는 일	65
〈表 42〉 將來의 人生觀	66
〈表 43〉 日常生活에서의 禮節生活	66
〈表 44〉 친구들간에 義理있는 사람	67
〈表 45〉 交通道德 遵守	67
〈表 46〉 公衆道德 지키기	68
〈表 47〉 周邊 整理整頓	68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靑少年期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道德的 價値와 基準에 대해서 가장 關心을 갖는 시기이기도 하며, 의식과 행동발달 단계에서 認知的 能力이 급격히 발달함으로써 도덕적 문제와 가치를 깨닫고 그것들을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다루게 되는 決定的 時期이다. 이러한 발달단계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정체성(identity) 확립과 올바른 自我意識(self-consciousness)의 형성 및 행동양식 결정은 개인 및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행동은 他人이나 주위 환경에 의하여 強化(reinforcement) 또는 變化(progressiveness)되기 때문에 환경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¹⁾ 현대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道德的 價値와 信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繼續的 再評價의 必要性을 力說하고 있다.²⁾

최근 우리 사회에서 道德性을 回復시키기 위한 人性教育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危險 水位에 머물고 있는 우리 사회의 倫理·道德의 意識 水準을 제 韃에 올려 놓자는 노력이기도 하다.

李光泳³⁾은, “고도의 經濟成長政策과 産業化 過程에서 생겨나는 전통적인 社會構造와 規範體系의 붕괴나 국민의 教育意識의 왜곡의 과제는 變革期마다 새로운 教育改革的 現안으로 어김없이 부상하지만, 심각한 교육 현실이 대변해 주듯 아직 기대할만한 변화는 없다. 그런데도 改革을 통한 教育 正常化 問題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百年大計의 입장에서 볼 때 教育의 比重이 실로

1) 이혜성(1980), “學校와 家庭教育”, 『새교실』통권 제 289호, 대한교원, pp. 20-21을 고성휴(1987)의 碩士學位論文(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家庭 環境의 變因과 統制所在과의 關係分析 研究」 p. 1에서 再引用.

2) J. J. Conger, 「Adolescence and Youth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權發鍾 譯 (1992), 「靑少年의 理解 : 變化하는 世界 속의 靑年」, 體育靑少年部, p. 607 參照.

3) 李光永(1993), “教育非理와 그 對策: 歪曲된 教育意識의 問題”,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1, No. 2, pp. 31-35.

막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이건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規範과 價値體系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의 秩序와 統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人性教育의 必要性和 當爲性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김윤환⁴⁾도, “教育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일에 目的을 두고 있다. 오늘날 교육에서 새삼 人性教育을 강조하는 까닭은 實踐爲主의 人性教育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다.

흔히 現代社會를 “모델 喪失의 時代” 혹은 “價値의 多神敎(polytheism of values)의 時代” 라고 혹평한다. 現代人들은 善惡을 가리기 어려운 價値의 葛藤 속에서 살아가거나⁵⁾, 무엇을 자신의 모델(modeling)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해 留保의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보고·듣고·느끼고·배우고 싶은 人間모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⁶⁾ 西歐 先進國들이 150여 년에 걸쳐서 漸次的으로 겪었던 사회·경제적 변화의 경험을 최근의 우리 사회는 한 世代 속에서 混沌을 느낄 만큼 두 서너 차례씩 겪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지난 후기 農耕社會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부모들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들은 현대 産業社會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장차 사회인으로 활동해야 할 생활 무대는 脫産業社會인 情報化 社會일 만큼 歷史의 短縮 속에서 Anomie⁷⁾ 現象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로 인해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4) 김윤환(1997), “人性教育의 理解”, 「아이들이 달라져요, 새교실 人性教育 資料集 VOL/42 NO.1」, 서울: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pp. 8-16 要約.

5) 강재륜(1991), 「現代社會와 倫理教育」, 大旺社, p. 275.

6) 최호성(1996), “學校單位 人性教育 프로그램 編成 및 運營”, 「學生의 多樣性和 創意性 伸張을 통한 人性教育의 活性化」, 教育部, p. 29.

7) 이회승 編著 國語大辭典에는, ① 행위를 規制하는 共通의 價値나 道德基準을 잃은 混沌 狀態, ② 心理學的 定義로는, 不安, 自己喪失感, 無力感 등에서 볼 수 있는 不適應 現象.

한편, 서울大師大敎育研究 所編의 敎育學用語辭典에는, ‘集團規範 또는 集團期待가 너무 많고 多樣하거나 자주 變更됨으로써 惹起되는 無規範狀態(normlessness). 현대 大衆社會의 한 부정적 特性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社會學者 뒤르켐(E. Durkheim)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集團規範의 모호함과 규범 자체의 갈등은 아노미 발생의 원인이 된다. 아노미에 빠지면 어떠한 安定된 제도에 所屬感을 느끼지 못하고 精神的으로 不安한 狀態에 놓여 受動的인 행동을 하게 되거나 極端的인 행동을 하게 된다. 아노미 현상에서는 自身의 行爲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道德的인 判斷도 할 수 없기 때문에 社會異常 行動者가 되기도 한다. 一般的으로 아노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自己 自身の 삶에서 아무런 意味

혼란과 갈등을 일으켜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懷疑的이거나 拒否感을 갖게 되어 새로운 價値觀의 등장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우려하는 既成世代와 자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⁸⁾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産業社會(industrial society)에 의해 빚어진 닫힌 이웃·갈등하는 社會構造 속에서 청소년들의 倫理·道德意識의 문제는 그들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社會的 要因의 糾明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道德的 意識의 強化'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古今東西를 통하여 청소년은 항상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또한 청소년 세대들에 의하여 家庭, 社會, 國家의 未來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 既成世代들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意志가 약하고, 情緒가 불안하며, 變德스럽고, 버릇이 없으며, 非理性的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서 獨立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과 交流(interchange)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서 현대의 청소년 문제는 사회 환경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既成世代) 자신의 과거의 意識과 生活樣式, 그리고 행동 등을 스스로 照明해 보면서, 初等學校 6학년생들의 人성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研究해 보고자 한다.

2. 研究의 目的과 內容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청소년의 意識과 行動은 매 2년 週期마다 크게 변한다⁹⁾고 한다. 그 만큼 현대의 청소년들은 전통과 새로움을 선택하는 歧路에서 절박하게 방황하고 있다. 인간의 精神, 肉體, 行動, 價値觀은 素質的·生得的 要因에 의해서도 형성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에워싼 環境的·後天的 要因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는 인간의 교육은 自然的 環境, 文化的 環境 및 그가 속하는

를 發見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自身이 속해 있는 集團이나 社會制度가 자신과는 相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8) M. Dale Baughman 外 著, 宋溶義 外 共譯(1987), "學生들이 眞正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1世紀를 위한 學校와 教師」, 教育新書 151, 培英社, p.107.

9) 권이중(1995), "現代 靑少年의 意識과 行動", 「教育月報」, 通卷 제 160호, 教育部, p. 44.

社會的 環境의 영향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人間教育이 社會的 基盤 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家庭教育과 學校教育이 所任을 다하려면 自然的·文化的 環境이 교육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¹⁰⁾, 특히 사회의 教育的 機能의 중요성이 再認識되고, 地域社會가 교육의 기반으로써 그 본래의 意義를 回復할 수 있을 때¹¹⁾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人間教育에서 人性教育이 언급되지 않은 적이 없고, 人性教育을 실행하지 않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人性教育은 社會教育의 중요한 關心事로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留意하여 본 연구는 새로운 人性教育 내용을 摸索하는 일 보다는, 6학년생들의 意識의 內面化를 促進시키고 있는 社會的인 人性 強化 要因들을 抽出·分析해 보려는 것이 本 研究의 중요한 목적이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意識을 밝힌다. 倫理·道德意識이 쉽게 內面化되는 시기이면서 行動修正이 효과적으로 가능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人性形成의 背景이 되는 要因을 조사하고자 한다.

한 인간의 성장 및 발달에는 家庭·學校·社會라는 環境이 큰 역할을 한다.¹²⁾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兒童期에서 靑少年期로 옮겨가는 징검다리 成長期이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지나쳐 버릴 性質의 것들이 아니다. 이처럼 兒童의 行動이 他人이나 周圍環境에 의하여 強化 또는 變化될 때 환경은 아동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¹³⁾

둘째, 청소년들의 倫理·道德意識의 肯定的인 측면과 否定的인 側面이 그들의 주위 環境 要因과의 相關關係(interrelation)를 밝혀 人性形成의 背景이 되는 社會的 要因을 究明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意識을 조사하고, 그들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을 지닌 民主社會人으로 성장할 수 있는 人性教育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 本 研究의 의도이므로,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서 청소년들의 道德性 發達段階와 人性教育에 대한 一般的 論議를 고찰하고, 이어 說

10) 金丁煥(1984), 「教育의 本質과 課題」, 博英社, p. 134 參照.

11) 李 中(1976), 「教育和 社會」, 培英社, p.134.

12) 康英淑(1990), “어머니의 養育態도와 子女의 性格特性과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p. 1.

13) 高成休(1987), 전계서, pp. 1~2 참조.

問紙를 통하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意識과 그 要因(social factors)을 糾明, 청소년들이 全人的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基礎資料를 제공하는 데 있다.

緒論에서는 연구를 위한 當爲性的 근거가 제시된다. 問題의 提起라 할 수 있는 研究의 必要性和 목적을 記述하고, 보다 具體的으로 연구의 內容 및 方法, 限界 등이 제시된다.

理論의 背景에서는, 첫째 人性和 人性教育의 概念, 人性的 形成과 發達, 그리고 가정 환경과 人성(home environment and personality) 등에 관한 問題를 다루려 한다.

우리는 교육과 관련하여 ‘學校教育’ ‘個別化教育’ ‘創意性教育’이라는 등등의 용어들을 무수히 사용하고 있다. ‘人性教育’의 例도 마찬가지다. 이와같이 교육이라는 單語 앞에 特定名詞를 첨가시켜 사용하는 複合語들은 별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意味論的으로 分析해 본다면 單語들의 生成動機나 焦點이 相異함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人性教育의 개념과 그 強化 方向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자 한다.

둘째, 현대 청소년들의 意識과 行動을 多角的인 側面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道德性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다. 道德性(morality)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理論的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道德的 行動(moral behavior)을 強化시키는 方法의 追求에만 몰두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道德性和 非行 또는 逸脫行動(deviant behavior)에 관한 연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進展(progress)이 없었던 것은 청소년들의 非行과 逸脫行動의 原因 및 發生過程에만 집착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兒童 및 靑少年의 道德性은 家庭, 學校, 그리고 社會라는 세 종류의 訓育者 또는 社會적 에이전트(social agent)가 그 所任을 다해야 훌륭히 育成될 수 있다¹⁴⁾는 점에서 그 토대가 되는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人性形成 背景 要因 조사의 타당한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 非行의 豫防 연구에 관한 고찰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비행의 慢性

14) 李勳求·吳慶子 共著(1994), 「道德的 行動의 強化」, 峨山財團 研究叢書, 第 16輯, 집문당, p. 3.

的인 逸脫行動에 대한 矯正과 治療의 성과는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道德性에 관한 體系的인 研究의 계기를 마련한 L.Kholberg의 道德發達理論, 認知發達理論과 傳統的인 人格教育의 相互 補完을 강조하는 T. Lickona의 統合的道德教育論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상의 道德性 또는 人性教育의 이론적 배경에 기초할 때 人性교육의 實踐形態가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人性교육을 올바르게 실천하려면 지금까지 人性교육이 어떤 체제에서 실천되어 왔는지 그 接近方法들이 검토될 필요성이 提起될 것이다.

새로운 人性教育의 올바른 接近方案을 摸索하기 위해서는 먼저 假說의 檢證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는 방안의 效率性 與否를 논의하는 準據가 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제안된 接近形態 내지 接近方法의 성격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研究의 限界

最近에 와서 人性教育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國家水準의 教育課程은 물론 市·道 教育廳의 教育指標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地域 社會教育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학교 일선에서도 人性教育의 열기는 대단하다. 그러나 人性教育과 관련하여 教育現場에서 논의된 연구 문헌이나 자료는 그리 흔한 실정이 아니다.

本 研究에서도 초등학교에 在學中인 6학년생에 한정하여 그들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주는 社會的 要因을 조사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倫理·道德意識에 대한 논의까지 확산시키지는 않았다.

兒童期에서 靑少年期로 접어드는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意識과 이들의 人性形成 背景 要因을 다루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人性教育은 앞으로 좀더 慎重한 考察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들의 倫理·道德意識과 人性教育은 논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制限點이 있다.

첫째, 本 研究의 대상은 濟州道內 13 個校의 初等學校 6학년생을 對象으로 했다. 이에 따라 結果의 分析과 解釋도 이에 局限된다.

둘째, 초등학교에 在學中인 6학년생의 人性形成 背景 要因에 관한 조사는 直接 相談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技術上 大部分 質問紙에 의존하고, 電話 相談이나 面接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했다.

II. 理論的 背景

1. 人性教育和 人性形成

가. 人性과 人性教育의 概念

教育學大辭典(The Dictionary of Education, 1988)¹⁵⁾에 의하면, 人性과 性格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人性(personality)에 대한 개념 규정이 정확하지 않다. 性格이라고 하면 흔히 영어의 character를 생각하며, 영어의 personality란 말도 그 번역이 여러 가지여서 性格, 人性, 人格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올포트(Allport G.W)는 말하기를 「character는 평가된 퍼스넬리티이며, 퍼스넬리티는 가치평가를 배어버린 성격이다. 그러므로 캐릭터라는 말은 심리학에서는 不必要한 개념이며, 퍼스넬리티라는 말로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性格을 퍼스넬리티란 말의 同義語로 설명하고 있다. personality란 라틴어 persona에서 온 말로서, per와 sonare가 합쳐진 名詞形으로서 per는 「...을 통해서(through)의 뜻이며, sonare는 「말한다(speak)」의 뜻이다. 원래 persona는 연극에서 사용하던 마스크 혹은 탈을 일컫던 말인데 그것이 차차 변화해서 지금과 같은 성격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教育學用語辭典(1986)¹⁶⁾에서도 마찬가지로, 人性을 性格(personality)과 같은 개념으로 定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持續的인 동기의 경향이나 비교적 오랫동안 계속되는 行動性向의 조직 내지 집합. 이는 認知的 思考나 價値, 그리고 신체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는 하나 感情的이거나 意志的특징과 같은 情意的 측면을 주로 가리키며, 특히 어떤 사람의 獨特하거나 두드러진 행위와 생각을 결정한다고 看做되는 心理的 복합이나 無意識的이거나 來現된 行動性向을 의미한다. 성격은 염색체와 같은 유전적인 것과 生化學的인 특징 등과 같은 생리적인 것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나 개인의 성장과 發達過程에서 경험하는 학습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性格은 비교

15) 교육과학사(1988), 황정규외, 「교육학대사전」, p. 673-674.

16) 서울대師大教育研究所(1986), 「教育學用語辭典」, 培英社, p. 301.

적 안정되고 持續的인 特徵을 지니고 있으나, 發達段階에 따라서 또는 새로운 학습에 따라서 변화된다고 보는 傾向이 우세하다.

現代心理學의 觀點에서 볼 때 人間의 本性, 즉 人性은 先天的·遺傳的인 影響보다는 後天的·環境的인 影響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教育部는 人性教育을 ‘道德性, 社會性, 情緒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性品을 기르는 교육’ 이라고 풀이하고, 이는 ‘物質보다는 人間을, 自身보다는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더 생각할 줄 아는 利他的 精神과 基本生活 習慣, 民主市民意識 및 世界市民 意識을 함양하고, 건전한 價値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중심의 人性教育’ 을 강조하고 있다.

韓國教育開發院은 人性教育을, ‘德性을 바탕으로 教養과 能力을 兼備한 인간으로 기르는 교육’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人性教育이라는 말은 性格教育이라고 하기보다는 人間性을 기르는 교육 또는 人格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人性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發達心理的 측면에서 人性은 어떤 경험(experience)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變化되고, 그 사람의 삶의 方向과 道德的 行爲의 質的 水準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개인적 측면에서 人性은 他人을 尊重하고 他人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禮節과 秩序를 지키고, 서로 도우며 함께 幸福을 찾도록 함으로써 個人的 幸福을 가꾸주는 기본이 된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人性은 급격한 경제 발전의 逆機能인 價値觀의 混亂(confusion of value system)과 社會 病理現象(pathological phenomena)을 豫防하고,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시대적 측면에서 人性은 世界化·情報化 時代에 바르게 適應하면서 個人과 國家의 發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올바른 倫理·道德意識과 뛰어난 創意力, 그리고 튼튼한 身體를 가지는 토대가 된다.

다섯째, 민족·국가적 측면에서 人性은 우리의 傳統文化를 계승·발전시키고, 共同體 意識(community sentiment)을 높이며, 民族의 同質性을 높이는 국가 발전의 原動力이다.¹⁷⁾

황응연¹⁸⁾은 人性(Personality)과 관련되는 여러 용어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人

性的 概念을 다음과 같이 整理하고 한다.

첫째, 性格(Character)은 회랍어의 「카타크테로」에서 나온 말이다. 즉 이미 새겨진 構造物과 같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 木材나 石材로 彫刻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基礎를 變化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氣質(Temperament)은 한자의 氣分과 體質의 合成語로서, 體質에 바탕을 둔 情緒的 反應 傾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氣質은 源泉의이고 遺傳的 影響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個性(Individuality)은 다른 사람과 여러 側面에서 差異가 나타나는 獨自의 特性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저마다의 獨自性이 있기 때문에 個人差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人性的 概念을 위 세 가지의 見解를 綜合·包括한 내용으로 定義하려고 한다. 즉 人性을 性格, 氣質, 個性 등을 포함하는 上位概念이라고 하고, 性格, 氣質, 個性 등 각각의 用語들은 人性的 下位概念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人性은 「개인의 특징적인 思考·感情·行動을 결정하는 心理-生理的 체계로서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力動的 構造」로서, 한 개인이 他人에게 풍기는 전체적 印象에 해당되므로 價值的 判斷을 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韓國教育開發院¹⁹⁾과 教育部²⁰⁾는 서구 사회의 人間教育 역사와 우리 전통 속에서의 人間教育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人間教育, 全人教育, 道德教育, 德性教育, 人性教育 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²¹⁾

첫째, 人間教育이란 教養과 德性和 能力을 신장시키는 교육으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둘째, 全人教育은 知·情·意 또는 智·德·體 등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領域들을 골고루 伸張시키는 교육으로 人間教育의 개념과 일치된다.

17) 김운환(1997), 前掲書, pp. 8-9 要約.

18) 황응연(1995), 「세계속의 韓國人 育성을 위한 人性教育」, 「세계속의 韓國人 育성을 위한 學校·家庭의 人性教育 革新方案」, '95 시·도 人性教育 擔當 教育專門職 研鑽會, 教育部, pp. 15-16 要約.

19) 韓國教育開發院(1994), 「人間性 涵養을 위한 학교교육 模型 開發 및 評價方案 研究」, 大韓教科書株式會社, pp. 35-37, 要約.

20) 教育部(1995), 「世界속의 韓國人 育성을 위한 學校·家庭의 人性教育 革新方案」, pp. 15-18 要約.

21) 경기도 社會科教育研究會(1996), 「人性教育 指導資料」, p. 7에서 再引用.

셋째, 道德教育에 대한 개념이다. 道德教育이란 도덕을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행동을 善惡의 價值的 評價 對象으로 볼 때, 人間關係에 있어서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넷째, 德性教育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道德像, 착하고 올바른 사람의 心性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일컫는다.

다섯째, 人性教育은 인간의 성격 또는 사람됨의 情緒, 情意的인 특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서 주로 德性 涵養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다.

이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볼 때, 人性教育은 때에 따라 人間教育, 全人教育, 德性教育 등의 용어로도 표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호성²²⁾은, 人間存在論에서 ‘人性’을 ‘人間本性’의 줄임말로 쓰이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人間教育’이 ‘人間本性 教育’, ‘人間性 教育’으로 달리 불리워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는 것처럼, ‘人性’을 ‘人間本性’의 줄임말로 쓰이는 것은 용어의 適切性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教育이라는 행위는 인간에게만 適用되는 독특한 것이기에 인간의 본성에 결부되지 않는 교육이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人性이라는 단어는 心理學的 논의에서 人性心理, 人性檢査, 人性開發이라는 단어들로 즐겨 쓰이고 있다. 이 때의 人性은 性格과 같은 의미의 단어이다. 이와는 달리 倫理·道德分野에서는 道德的 價値가 개입된 개념으로서 人格이라는 用語를 즐겨 사용한다. 흔히 人品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단어는 ‘고상하다’ ‘고매하다’와 같은 비교적 價値介入의 단어들과 잘 어울려 사용되고 있다. 결국, 人格은 價値가 介在된 개념인데 비하여 性格은 價値가 排除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道德的인 價値가 개입된 人格과 개인이 지닌 독특한 特性의 總體를 가리키는 性格이 결합되어 양쪽의 格을 떼내고 생겨난 용어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人性教育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性格的 側面과 倫理·道德的 特性으로서의 價值的 側面을 包括的으로 追求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 人性의 形成과 發達

人性의 形成²³⁾은 先天的·遺傳的·生得的인 영향도 크지만, 그 보다는 後天

22) 최호성(1996), 前掲書, pp. 17-19.

的·環境的·學習的인 영향이 더 크다. '生後 生活環境이 人性 決定의 중요한 條件' 이라고 지적한 S. Freud의 견해는 後天的·環境的·學習的인 影響의 중요성을 잘 지적한 말이다.

외모나 표현 방식과 같은 外向的 특성과 마음씨·對人關係·사람됨 등의 내면적 특성이 모두 人性 形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 과 발달의 社會化의 過程을 거치는 동안에 陰陽으로 영향을 받아 인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人性 形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後天的·環境的·學習的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 보면,

첫째, 自然的·物理的 要因을 들 수 있다. 어디서 출생했고, 어디에서 성장했느냐의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곳의 地勢·氣候·風土·產物 등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는다. 그리고 大陸 對 島嶼, 평지·海邊 대 山岳·산촌, 大都市 대 農漁村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地方이 처한 환경에 따라 生活風習이나 말씨 등이 다른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家庭的 要因이다. 직접적으로는 부모의 養育態度, 訓育方式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家族間的 集團 力動性이나 集團 雰圍氣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진선²⁴⁾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하여 심리적 환경이 좋을수록 아동의 成就動機가 높아졌으며, 아동의 成就動機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12%가 가정의 物理的 環境, 22%가 가정의 心理的 環境으로 나타나 가정환경이 아동의 成就動機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강영숙²⁵⁾은, 가정의 經濟水準, 文化水準, 住宅地의 주변 환경은 어머니의 養育態度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머니의 養育態度가 愛情的이고 肯定的일 때 자녀의 性格形成에 도움이 크고, 어머니의 愛情이 부족한 자녀는 어머니에 대하여 애정의 요구 및 주의를 끌려는 행동으로 반항, 공격, 거짓말, 神經症的 傾向과 問題行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23) 황웅연(1995), 前掲書, pp. 16-17 要約.

24) 김진선(1986), “家庭環境이 成就動機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p. 37.

25) 강영숙(1990), 前掲書, pp. 40-46 參照.

셋째, 社會階層의 要因이 있다. 가정의 價値 指向性和 가정의 階層의 差異가 人性 形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家庭의 價値 指向으로는, 傳統指向과 內的指向 그리고 他人指向이 있는데, 전통 지향은 정해진 規範과 慣習, 文化的 目標을 중요시한다. 內的指向으로는 財産, 權限 등 가족의 內面的 標準을 중요시 한다. 또한 他人指向으로는 친구 집단의 인정과 인기 등을 중요시한다.

가정의 階層의 差異로는, 上流層(high class)은 家門, 傳統, 威信, 體面 등을 존중하고, 中流層(middle class)은 健實, 勤勉, 努力, Vision, 社會 上昇의 慾求 등이 강하며, 下流層(lower class)은 하루살이 人生과 같아 未來像이 약하며, 現實生存에 急急한 나머지 Vision이 거의 없어 보인다.

넷째, 社會的 役割 要因이 있다. 社會가 요구하는 行動樣式이 이에 해당된다. 이것은 社會的 壓力, 社會的 期待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父母의 役割, 男兒·女兒의 性 役割, 長男·長女, 中間·막내 등의 出生 順位, 직장에서의 業務 內容 등이 그들 자신의 社會的 役割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자녀들의 社會的 役割도 결정한다.

다. 家庭環境과 人性(Home environment and personality)

(1) 父母의 養育態도와 人性

김제한은 그의 논문 「家庭環境이 兒童의 性格 特性에 미치는 影響」²⁶⁾이란 論文에서, 外國의 여러 학자들의 조사 연구 결과를 引用하면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S. Freud는 아동의 性格形成에 있어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養育態度라고 주장했고, A. L. Baldwin은 民主的 雰圍氣를 지니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은 交友關係에서 높은 社交性을 나타내고 친절하며 자기자신의 情緒的인 感情을 容易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Endsley, Hutcherson, Garner, Martin(1979) 등은 學齡前 아동과 어머니와의 相互作用을 관찰하고 어머니에서 說問紙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權

26) 김제한(1974), “家庭環境이 아동의 性格形成에 미치는 影響”, 「論文集」, 제7집, 서울교육대학교, pp. 253-283.

威의일수록 자녀가 肯定的 相互作用을 적게 하고 새로운 자료의 탐구에 덜 鼓舞的인 경향이었으며, 딸을 가진 어머니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보다 愛情的으로 반응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Hurlock(1953)의 研究 結果를 중심으로,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린이는 養育하는 방법과 人格形成에 있어서 어떤 環境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첫째, 受容的인 養育方法은 어린이들의 協同性和 社會性을 보다 잘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交友關係에 있어서 좀 더 친절해질 수 있고 獨立的이며 自發性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拒否的인 養育態度는 어려서부터 反社會的이고 情緒的으로 불안정하고 사람에 대한 信賴感을 喪失하게 만든다.

정원식(1990)²⁷⁾은 그의 著書 「現代教育心理學」에서, 외국의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소개하고 있다.

Baldwin, Sears, Symonds, Radke 등이 ‘父母의 養育態度가 자녀의 性格形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研究한 바,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溺愛型 또는 過保護的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신경질, 조숙, 자기중심주의, 비사회성 및 정서적인 陽極性이 나타나고 둘째, 拒否型和 放任型的 가정에서는 反抗的이고 攻撃的이며 불안정한 성격이 길러지며 셋째, 支配的인 가정환경에서는 受動的, 依存的, 順從的인 성격과 불안 내성적 경향 및 專制的인 性格, 즉 弱者에게는 강하고 强者에게는 順從하는 성격의 特性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養育態度는 자녀의 性格形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정에서 習得된 人性이 학교생활에 妨害 또는 도움이 되는 경우는 茶飯事이나, 학교가 가정의 缺陷을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볼 때, 家庭環境은 아동의 性格形成에 絶對的인 影響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養育態度는 方法論 보다 愛情(affection)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⁸⁾

(2) 擴大家族과 核家族間 자녀의 人性

다음은 擴大家族과 核家族(小家族)間 의 자녀의 人성 비교에서 祖父母가 孫子

27) 정원식 외(1990), 「現代教育心理學」, 教育出版社, pp. 305-306.

28) 劉亨根(1992), “父母의 養育態度 및 兒童의 人性特性과 學급내 社會性 水準과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pp. 19-20 要約.

女の 人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先行研究의 고찰이다.

任英彬(1992)²⁹⁾은 그의 論文 「확대가족과 핵가족간 자녀의 人성과 자녀가 知覺한 어머니 養育態도의 關係」에서, “夫婦中心의 核家族에서는 子녀의 教育이 부모에 맡겨지지만 擴大家族에서는 祖父母가 상당한 役割을 한다. 부모 이외의 조부모는 教育의 補助者, 相談者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代理父母의 役割도 한다. 그래서 핵가족에서 자라는 아동과 확대가족에서 자라는 아동간에는 이러한 家庭環境의 影響으로 여러 가지 特性에 차이를 보인다.” 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Bossard³⁰⁾의 ‘大家族環境과 小家族環境의 比較·分析’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靑少年期の 祖父母와 孫子女間의 紐帶關係는 孫子女가 삶의 경험인 많은 조부모로부터 文化的인 지식과 가정의 역사를 傳授받음으로써 시간과 경험과 삶의 연결 즉, 현재와 과거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해 줄 수 있으며³¹⁾, 이러한 世代 相互關係의 인식을 통하여 靑少年은 連續感과 統合感을 발달시켜 靑少年기의 發達課業인 自我正體感(self-identity)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두 자녀로 적은 수의 자녀를 두는 현대의 가족은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愛情과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長點이 있으나, 동시에 지나치게 期待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의 발달에 否定的인 影響을 발휘할 수 있기도 하는데 이때 조부모의 存在는 이러한 強度를 부드럽게 조정해 주는 役割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靑少年들이 부모로부터의 獨立成就와 自我正體感을 이루는 과정에서 父母와 子女의 사이에서의 祖父母의 調整은 肯定的으로 影響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³²⁾ 小家族 環境과 大家族 環境이 兒童에게 미치는 影響에 대해 비교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表 1>과 같다.

29) 任英彬(1992), “擴大家族과 核家族間 子녀의 人성과 子녀가 知覺한 어머니 養育態도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pp. 8-12 要約.

30) J. H. Bossard(1960), *The Sociology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 p. 129.

31) M. Baranowski(1982), “Grandparent-adolescnet relation:Beyond the nuclear family”, *Adolescence*, 17, pp. 575-584.

32) 임영빈(1992), 前掲書, pp. 10-11. 要約.

〈表 1〉 小家族 環境과 大家族 環境이 兒童에게 미치는 影響 比較

家族形態	小家族 環境	大家族 環境
特 徵	(1) 경제적 이득을 많이 갖게 되고 (2) 부모가 아동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3) 아동의 사회적 경험이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며 (4) 부모가 과다하게 압력을 가하고 (5) 同年輩 集團과 밀접한 관계를 충분히 갖지 못하며 (6)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成人이 적다.	(1) 폭넓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2) 아동은 생활의 현실을 보다 빨리 受容하며 (3)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게 되며 (4)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잘 청하고 (5) 가족으로서의 永續感과 孫子女의 삶을 豐饒하게 한다..

(3) 우리 나라의 傳統的인 人性教育

中庸³³⁾에 보면, “인간은 先天的으로 人間性을 지니고 태어나며, 이 타고난 人間性에 따르는 것이 인간의 길이고, 이 길을 따르도록 德性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이며 教化” 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계학³⁴⁾은 이 〈中庸〉의 가르침에 따라 順理的

33) 서울大師大教育研究所 編 教育學用語辭典에 의하면, 中庸(mean)이란 道德理論에 있어 過(過) 또는 不足(不足)이 없는 행위의 準則이라고 하고 있다. 이 이론은 중국의 子思, 그리스의 Platon과 Aristoteles에 의해 주장되었다. 子思는 그의 著書 〈中庸〉을 통하여 人間行爲의 理想的 기준으로 中庸의 원리를 體系化하여 중국과 한국에 널리 영향을 미쳤다. 그에 의하면, 〈中〉이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이 꼭 알맞는 것을 말하며, 〈庸〉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바른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즉, 〈中庸〉이란 덮어 놓고 중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가장 참되고 不變하는 原理인 것이다. Platon은 인간 행위의 準則으로 節制·勇氣·智慧·正義의 4德을 말하고 있는데, 이 德은 均衡과 調和라는 中庸의 思想 위에 세워진 것이다. 中庸은 Aristoteles 倫理學의 中心概念이다. 그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衝動과 慾望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인간을 支配하게 해서는 안되며, 不足과 過度와의 中庸으로 調整되어야 한다고 했다. 〈道德的인 德〉은 이 中庸이 어느 정도로 實現되는가에 따라 생겨나는 것인데, 이 때의 中庸은 행동이 양 極端 사이의 中間을 취하는 것이기는 하되, 數量的인 中間値가 아니라 〈最善性〉의 位置에 서는 것을 말함이다.

34) 이계학(1994), “道德의 삶과 共同體 倫理”, 『教育月報』, 통권 제156호, 教育部, p. 61.

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道德性 教育에서 가장 중요한 韓國人의 傳統的인 教學思想이자 方法論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오봉³⁵⁾은, 동양사상은 우주 질서와 인간 행동의合一된 法則을 禮儀라고 생각하지만, 서양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권리와 능력을 더욱 重要視하고, 개인의 幸福 追求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렸으며, 자연은 오로지 인간의 利用物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人格教育은 우선 東西洋의 人생觀과 자연觀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人性教育은 弘益人間(extension of human welfare)과 天符經³⁶⁾의 뿌리에 佛教, 儒教, 道教, 그리고 實學思想 등이 接木되어 하나의 사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도 儒家思想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 왔는데, 人格을 知識보다 중요시하고 躬行(몸소 행함, personal practice)을 교육의 목표로 삼은 儒家思想을 人性教育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儒家思想에서는 禮의 근본을 仁에 두어 「毋不敬 思想」을 확산시켰으며,

둘째, 禮는 공손하고 정성스런 태도로 실천을 해야 모든 사람들이 幸福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儒家思想은 어릴 때의 교육을 바른 生活教育에 힘써, 작은 行實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어릴 때의 올바른 生活習慣 教育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³⁷⁾

넷째, 兒童教育은 그 中心을 禮에 두고 어릴 때부터 말과 행동을 禮儀凡節에 맞도록 지도하였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몸소 모범을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으며, 집안마다 家訓과 家禮가 있어서 嚴父慈母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35) 권오봉(1994), “올바른 人格形成을 위한 禮節 教育”, 「教育月報」, 通卷 제149호, 교육부, p. 39 參照.

36) The Encyclopedia of Korean History(1980, 教育出版社)에 의하면, 檀君神話에서 桓雄이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 왔다는 天符印(風伯, 雨師, 雲師) 3개를 天符와 印 두 가지로 區分하여, 天符를 天符經이라 한다. 崔致遠은 天符經이 81字로서 白山에 새겨져 있다고 하였는데, 桂延壽가 영변 白山の 石壁에 새긴 81字를 發見하고, 全秉薰이 ‘精神哲學’에서 註解하였다.

37) 이덕무(李德懋) : 朝鮮 正祖 때의 實學者, 博學多才한 文章家이며 書畫에도 뛰어남, 朴齊家, 柳得恭, 李書九 등과 함께 奎章閣의 4 檢書官으로 이름을 빛냄. 1778년(正祖 2년) 北京에 가서 그 곳의 학자들과 交友하면서 學問을 닦고 山川·道里·宮室·樓臺·草木·蟲魚·鳥獸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적어와 더욱 名聲을 얻음.

다섯째, 書堂과 家庭과 社會가 연계적인 協力關係를 이루어, 書堂에서는 教材를 통하여 바르고 착한 心性을 기르며, 家庭에서는 마음 기르기와 함께 바르고 착한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였다. 그리고 靑少年들의 훌륭한 자람에 대한 칭찬(admiration)과 非行(misdemeanor)에 대한 꾸중은 門中の 連帶로서 善導하여 그 집의 名譽가 되도록 하였다.

라. 人性 發達의 基本 原理와 段階

人性의 發達³⁸⁾은 인간의 일반적인 성장·발달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漸進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첫째, 人性의 발달은 成熟과 學習(遺傳과 環境)의 相互作用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人性의 發達은 分化의 過程과 統合의 過程을 거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人性의 發達은 連續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미 이전에 발달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

넷째, 人性의 發達은 初期의 발달일수록 그 폭이 크고 빠르며, 그것이 그 개인의 將來 人性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된다.

다섯째, 人性의 발달은 각 개인에 따라 發達의 速度나 程度가 다르게 나타난다.

프로이트(S. Freud)³⁹⁾에 의하면, 아이들은 처음 5년여 동안에 力動的으로 구별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고, 그 이후 5-6년간 潛伏期를 맞이했다가 靑少年期에 접어들면서 力動性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다시 力動性이 安定的으로 되는 成人期에 이르른다고 하는데, 프로이트는 처음의 5-6년간을 人性 형성의 決定的 時期로 보고 있다.

처음 5년간의 각 발달단계는 身體의 特定한 부위에 대한 反應樣式에 의해 定義된다. 약 1년간 持續되는 첫 단계인 口脣(oral) 단계 동안에는 입이 역동적 활동의 주요 부위이다. 이 口脣期는 항상 먹는데 열심이고, 이런 행동으로 즐거움을 찾는 시기이다.

38) 황응연, 前掲書, pp. 17-18 要約.

39) 南宮達華(1996), 「道德教育論」, 哲學과現實社, pp. 30-36 要約.

두 번째 단계는 肛門(anal)의 段階이다. 排泄機能을 둘러싼 精神에너지 및 反精神에너지 형성의 발달로 이루어진다. 肛門段階 1-2년 사이에 일어나는 發達過程이다. 세 번째 단계는 男根崇拜(phallic)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性器官이 性感帶를 주도한다. 口脣(oral), 肛門(anal), 男根崇拜(phallic) 단계를 前性器期라고 한다. 男根期 이후에 아동은 긴 潛伏期에 접어든다. 이 潛伏期間에는 衝動이 억압된 상태에 있게 되는데, 靑少年期の 力動性 復活은 前性器期の 衝動을 재개시킨다. 만약 이러한 충동이 自我(ego)에 의해 성공적으로 代替되고 昇華되면, 그는 최종 成熟段階인 性器期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특히 肛門期에는 口脣期에 매사가 주위에서 해주는 대로 順從하고 받아 들이는 태도와는 반대로, 차츰 反抗하고 자신의 意志대로 하려는 傾向이 생긴다. 그래서 최초로 自身の 意志에 따라 하는 행동이 大·小便을 참기도 하고 싸기도 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지나친 滿足이나 挫折이 있어 人格 발달이 잘 展開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肛門期的 性格이 생기는데, 이는 매우 꼼꼼하며, 매사 정확하여 빈틈이 없고, 秩序 整然하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肛門期的 性格의 所有者' 라고 일컫기도 한다.

마. 兒童期の 道德性 發達理論과 道德教育⁴⁰⁾

現代社會에 道德不在現象이 심화될수록 道德教育의 필요성은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成長過程에 있는 靑少年의 道德性의 발달을 잘 알 필요가 있으며, 道德性의 발달에 따라 필요한 道德性을 부여하고 適合한 指導法을 써야 한다.⁴¹⁾

프로이트의 精神分析理論에 의하면, 兒童期는 주로 人性發達의 潛伏期에 해당된다. 潛伏期은 Oedipus Complex가 解消되는 5·6세로부터 시작하여 11세 경까지 이르는 시기이다. 그러나 Tice(1980)는 이 시기를 '生' (life)의 單純한 時期로 보지 않는다. 潛伏期은 특정한 社會의 文化에 영향을 받지만, 그 밖에도 두뇌의 크기, 神經學的 成熟, 認知 發達 등의 결과에도 影響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潛伏期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특한 發達構造라는 것이다.

(1) 潛伏期の 特徵과 道德性 發達

40) 南宮達華(1996), 前掲書, pp. 44-54 要約.

41) 강재륜(1991), 前掲書, p. 63.

Oedipus 단계를 지나는 아이들은 한동안 不安定한 모습을 보이면서 退行的인 행동을 하려 한다. 以前의 具體적이고 魔術的인 象徵主義(symbolism)와 聯想(association)이 推論과 實在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直面하여 크게 葛藤하기도 한다.

초기 潛伏期の 아동들은 漸次的으로 새로 형성된 象徵化 能力에 기초하여 幻想과 防禦의 目錄을 만든다. 이것은 性的·攻擊的 活動의 禁止에 직면할 때 欲求 發散을 가능케 해준다. 초기 潛伏期에는 幻想 自體가 유용한 防禦가 된다.

비교적 안정된 사회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잠복기는 慣習的 社會價值 및 慣行의 전달이 확실하여, 세대간에 文化的 의미의 전달과 未來社會에 適應하는 機能 習得도 規則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잠복기를 지나는 동안 아동들은 幻想과 實在을 구별하게 되며, 初期의 父母와의 相互作用에서 형성되었던 同一視가 ‘內面化’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現象은, 아동이 그의 부모에 대한 初期의 批判을 自己 自身の 命令을 構成하는 일부가 되게 하는 데 作用한다. 즉, 超自我 機能의 나타나기 시작한다.

批判的·禁止的 기능을 하는 내부 명령의 소리인 초기의 超自我는 때로는 지극히 嚴格하다. 아동이 神經症的 徵候에 固着되지 않는 한, 사랑과 支援과 理想 設定과 같은 여러 측면의 超自我 機能의 점차적으로 이들 기능을 強化시킨다. 그 결과, 새로운 內的 構造인 超自我가 형성된다. 이제 아동은 名實共히 새로운 세계에 入門하게 되어 超自我 및 自我 理想이 그들의 精神分析學 道德性 發達理論의 중심이 된다.

(2) 超自我 機能과 道德性 發達

超自我⁴²⁾ 機能은 道德發達の 본래적 組織 機能이다. 이 부분에서는 Tice

42) 教育學大辭典(1988, 황정규외 7인, 教育科學社)에 의하면, 프로이트가 그의 精神分析 理論 중에 精神的裝置(mental apparatus)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概念으로, 프로이트는 인간의 personality와 관련된 精神的 領域은 原自我(id), 自我(ego), 超自我(super-ego)의 세 가지로 構成되어 있다고 하였다. id는 遺傳的으로 받은 것, 體質的으로 個體에 갖추어져 있는 것, 身體器官의 機能에 의한 慾望 등 本能的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능은 內外的 刺戟에 의해 해방된 에너지를 직접 발산하여 快樂原理(pleasure principle)에 의해 快를 구하고 不快를 피하여 움직인다. 이에 대해 超自我는 良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id가 그 本能的인 慾望을 채우려고 하는

(1980)의 超自我와 良心의 概念的 差異, 超自我 前兆現象을 중심으로 하는 中期 潛伏期の 道德性 發達の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一般的 意味로 사용되는 良心(conscience)은, 精神分析理論에 의하면, 반드시 超自我와 일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超自我는 주로 自我 尊重의 調節, 自我 慰勞 및 保護, 道德과 無關한 價値 및 規則을 내면화하는 기능을 한다. 良心 역시 道德과 무관한 領域에서 행동의 內的 調節機能을 한다. 그러나 良心은 주로 道德 및 社會的 慣習과 관련된 기능을 한다.

둘째, 中期 潛伏期에서 보여 주는 발달 특징은 無數히 많다. 그들 중 일반적 특징으로는 超自我 前兆(precursors)의 使用, 分離感情의 發達, 自我理想構造의 形成, 規制的 構造와 支持的 構造의 뒤섞임, 攻擊性的 變化, 罪意識 또는 羞恥心の 持續의 役割, 自我意識의 成長 등을 들 수 있다.

中期 潛伏期の 아동은 여러 종류의 超自我 前兆들을 새롭게 사용하기 위해 內的으로 통합하고 발달시키는 일에 열심이다. 超自我 前兆들은 道德性 發達の 要素로 작용한다. 특히 다음의 超自我 前兆들이 중요하다.

- 1) 外部 世界와의 關係에서 사용되는 全體的 感覺 操作樣式으로부터 이끌어지는 ‘父母의 象(images)’
- 2) 言語 및 제스처를 통해 表現되고, 마침내 價値 認識에 焦點을 두는 상상적이고 價値 담재적인 ‘實在의 表象’
- 3) ‘아니’ 라고 말할 수 있고, 자아 批判을 할 수 있고, 攻擊者로 知覺된 側面을 認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또는 敵對的으로 대하는지를 知覺할 수 있는 ‘能力’
- 4) 感情移入(empathy)
- 5) 對話 및 協同의 놀이를 할 수 있는 能力
- 6) 먼저 自我에게 適用하고,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適用할 수 있는 삶의 正義感 등이다.

또한 후기 潛伏期 발달에서, 自我理想은 理想的 人格 特性, 道德 및 價値의 標準으로 作用한다. 超自我 機能의 다른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自我理想은 다른 사람, 특히 父母와 祖父母의 特性 및 理想을 자기의 견해로 內面化함으로써 獨特

것을 어머니처럼 타일러서 못하게 하는 作用을 한다. 超自我는 그 特異한 리비도(libido)의 發達理論에 따르면, 주로 외디푸스(Oedipus)期, 즉 男根期에 形成된다고 하고 있다.

한 構造를 형성한다. 潛伏期 이후의 아동은 教師, 또래 등과 相互作用을 함으로써 繼續해서 自我理想을 형성하고 發展시킨다.

모든 超自我 構造 및 機能들은 갈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 領域의 經驗으로부터 이끌어지기 때문이다. 個人의 成長이 持續됨에 따라 이들의 葛藤을 감소시키는 統合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完全한 統合狀態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 社會 領域에서의 理念은, 아무리 그것이 잘 形成되고 內的인 一貫性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領域에서의 理念과 흔히 葛藤할 수 있다. 한편, 超自我 機能도 自我機能처럼 病的으로 孤立되고, 歪曲되고, 退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特定한 狀態에서는 停止될 수도 있다고 Tice(1980)는 強調하고 있다.

(3) 兒童發達과 人性教育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때는 自己中心的이고 成人의 認定을 받으려고 하며, 다른 사람의 言行을 模倣(imitation)하려고 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이 때의 人性教育은 感化(good influence)와 賞讚(praise)과 報償(compensation)과 模範(model)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은 生活禮節과 基礎 秩序와 共同體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4학년이 되면 動機를 重視하고, 他人을 理解하며, 集團活動이 旺盛한 때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교육은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하여 理解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곧 나에게 利益이 됨을 이해시키며, 아울러 어떻게 하겠다는 信念을 굳게 하도록 해야 하고, 그 내용은 禮節과 秩序와 民主市民教育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現代教育에서 요구되는 人性教育의 방향을 과거의 德目 爲主의 教育이 아닌 統合的인 人性教育, 즉 學校와 社會, 학생 同僚가 함께 하고 認知的 次元과 情意的 次元이 동시에 접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6학년이 되면 自律的인 判斷과 論理的인 思考가 이루어지고, 合理的인 行動과 함께 自己 抑制도 가능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때의 교육은 여러 사람들과의 討論에 의한 合議, 葛藤 狀況의 苦悶과 判斷 및 選擇 중심의 道德的인 問題解決過程을 거치도록 해야 하며, 이와 아울러 人間尊重, 公共秩序, 利他精神 등의 民

主市民 교육이 強化되어야 한다.

바. L. Kohlberg의 道德發達理論

Lawrence Kohlberg(1969, 1978)⁴³⁾는 道德發達の 核心이 道德의 문제에 관하여 推論하는 認知過程의 成熟에 있다고 보고, 道德推論過程(the process of moral reasoning)의 發達을 여섯 段階로 나누어 詳細히 記述하였다(註 25 參照). Kohlberg는 사람들마다 道德的 問題의 理解와 判斷에 適用하는 認知的 틀을 지니고 있다고 假定하고, 이러한 認知的 틀의 成熟이 道德發達(moral development)의 核心임을 강조하였다. Kohlberg의 道德發達理論은 具體的인 價値觀이나 意見보다는 道德的 問題에 관하여 思考하는 方式을 強調하고 있다. 즉 아동이 認知的으로 成熟해짐에 따라 道德的 問題를 概念化하고 判斷하는 認知的 틀이 發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점차 成熟된 道德判斷(moral judgement)과 行動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어린 時節의 父母와의 關係를 통하여 부모의 道德的 價値(moral value)를 內面化하는 과정을 道德性的 根源으로 보는 精神分析理論의 觀點이나, 經驗을 통하여 行動이 直接 學習되는 過程을 強調한 社會學習理論의 立場과는 달리 맥을 달리하는 見解이다.

Kohlberg의 道德發達理論에서 가장 核心이 되는 개념은 正義(justice)의 概念이다. Kohlberg는 正義란 단순히 지켜야 하는 規則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 어떠한 狀況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道德的 原則이라고 하였다. Kohlberg가 記述한 道德發達の 여섯 단계는 이 ‘正義’의 概念이 兒童의 認知能力的 成熟과 함께 차츰 더 分化되고 다시 統合되어 가는 과정을 反映(influence)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ohlberg는 道德的 思考와 推論方式이 成熟되어 가는 過程을 다음의 세 水準, 여섯 단계로 나누어 記述하였다. Kohlberg의 여섯 道德發達段階는 서로 論理的으로 有機的인 關係를 맺고 있어 각 段階의 核心的 概念의 獲得은 그 다음 段階

43) L. Kohlberg(1969), *Stage & Sequence : The Cognitive -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pp. 347-480의 要約된 內容과 L. Kohlberg(1978), *Revisions in the Theory & Practice of Moral Development*, 「New Direction in Child Development : Moral Development」의 內容을 李勳求·吳慶子, 前掲書, pp. 141-146에서 再引用.

의 認知構造(cognitive structure) 獲得의 先行條件으로, 누구나 狀況이나 脈絡에 관계없이 동일한 發達段階들을 동일한 순서로 거쳐 나가는 것으로 假定되고 있다. 따라서 道德性(morality)에서의 個人差異는 道德發達の 速度, 혹은 最終적으로 到達한 發達水準에서는 찾아볼 수 있으나, 根本적으로 道德發達이 進행되는 過程은 누구에게나 同一하다고 본다.

Kohlberg는 Piaget(1948)와 동일한 脈絡에서 한 단계의 認知構造(cognitive structure)가 다음 단계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認知的 葛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兒童이 어른이나 같은 또래들과의 相互作用을 통하여 價値觀의 葛藤狀況을 접하게 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認知的 葛藤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認知的 葛藤은 아동으로 하여금 현재의 道德推論方式과는 다른 形態의 道德推論을 시도하게 하여 좀더 成熟된 道德判斷(moral judgement)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經驗으로부터 오는 刺戟이 어느 정도는 道德推論(moral reasoning)의 발달을 促進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道德推論의 成熟을 돕는 訓練의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아동은 多樣的 道德的 推論方式을 활발하게 探索하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hlberg, 1969; Piaget, 1948; Turiel, 1974). 예컨대 Kohlberg와 Kramer(1969)는 미국 청소년의 경우 大略 10세에서 13세 사이에 因襲以前水準에서 因襲水準으로 바뀌게 되는데 적어도 이 시기에 因襲水準의 도덕추론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以後에는 더 이상의 발달이 일어나기가 어렵고, 因襲以前水準에 固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靑少年期 初盤이 道德推論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도덕추론의 訓練을 통하여 道德性的 涵養을 試圖한다면 청소년기 初盤이 適切한 시기임을 알려 주고 있다.

한진옥⁴⁴⁾에 의하면, 콜버그(L. Kohlberg)는 道德教育의 목적을 兒童들의 道德的 判斷能力이 自發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鼓舞시켜 자신의 道德判斷을 스스로의 行동을 刺戟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본다. 즉, 다음 段階로의 발달을 刺戟하여 原理化된 上位段階의 道德判斷能力을 獲得하도록 促進하고, 아울러 이 능력에 일치하는 行動傾向性を 縮地시키는 道德發達の 刺戟을 목적으로 규정한다. 그에게 있어서 道德教育의 窮極的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道德性 發達の 제일 높은 段階인 6段階의 ‘普遍性 있는 倫理的 原理 指向性’에 到達시키는

44) 한진옥(1996), “初等學校 道德教育을 위한 콜버그 道德教育論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p. 45.

것이다. 6段階의 道德性은 완전한 自律 속에서 選擇된 倫理的 原理에 一致하는 良心의 소리에 따라 道德判斷이 내려지는 단계의 道德性を 말한다. 물론 이 때의 良心에 立脚한 判斷은 論理的으로 矛盾이 없으며, 良心을 지키는 누구에게나 옳은 것으로 認定되며, 時・空間의 一貫性이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

한편 튜리엘(E. Turiel)⁴⁵⁾은 다음 단계로 移行(transition)하는 데는 最適期가 있으며 새로운 단계에 막 도달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의 移動을 促求하는 刺戟에 기꺼이 反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一定 思考段階에 오랜 기간 머물게 되면 그 段階에 固着化되므로 이러한 兒童들은 결국 다음 단계로의 履行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一定段階에 이른 나이 어린 兒童이나 段階年齡水準에 비해 나이든 兒童은 上位段階의 자극에 덜 同化되고 덜 反應한다는 것이다. 그는 콜버그와의 연구에서 10세에서 13세 기간 중 水準 1에서 水準 2에로의 履行이 일어나지 않은 아동은 成人이 되어 水準 3의 獲得이 어렵다는 事實을 밝히고 있다. 이 年齡은 초등학교 高學年에 該當하는 나이로서, 이러한 사실은 초등학교 道德教育에서 道德性 發達段階의 固着을 막고, 보다 나은 發達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條件을 만들 수 있음을 示唆한다.

사. T. Lickona의 統合的道德教育論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사회의 全般的인 保守化 경향과 더불어 道德教育의 분야에서도 傳統的인 방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澎湃하기 시작하였다. 즉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대두되었던 認知發達理論, 價値明瞭化, 價値 分析 등의 接近法들이 학생들의 道德的 行動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특정한 德目이나 가치를 直接 注入하는 형태로서의 人格教育(character education)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人格教育은 미국의 道德教育을 대변하는 象徵的 용어가 되어 있을 정도로 가장 一般化된 道德教育의 방법으로 盛行하고 있다.

인격교육은 오늘날 미국 도덕교육의 主流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것에 대한 상세한 理論的 根據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人格教育이 具體的인 행동의 변

45) E. Turiel(1977), *Conflict and Transition in adolescent mor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5, pp. 14-29 要約. 한진옥, 前掲書, p. 45에서 再引用.

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듯이, 最近의 研究 動向은 理論的 論議보다는 具體的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T. Lickona는 人格教育의 이론적인 根據를 提供하는데 있어서 指導者의인 위치를 굳히고 있다.

認知發達 理論에 근거한 Lickona의 心理學的 배경은 L. Kohlberg와의 만남을 계기로 道德教育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는 단순히 Kohlberg의 관점을 盲目的으로 受容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人格教育의 방법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Lickona의 統合的道德教育論⁴⁶⁾은 傳統的인 人格教育의 완전한 부활을 주장하는 復古的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認知發達理論과 傳統的인 人格教育의 長點들을 相互 補完하려는 統合的인 이론을 전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때 認知發達 理論의 擁護者였던 Lickona는 인지발달 이론의 長點들과 傳統的인 人格教育의 장점들을 相互 統合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73년 도덕과가 하나의 독립 교과로 등장한 이후, 우리의 道德教育은 지나치게 認知發達 理論에 근거함으로써 言語化·抽象化의 傾向을 띠어 왔다고 해도 誇言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道德性의 情意的·行動的 측면에 대한 논의는 마치 道德科의 본래적 기능이 아닌 것처럼 誤認되는 傾向을 초래하였다. 많은 교사들은 道德科 授業에서 직접적으로 道德的 行動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道德科 授業은 道德的 問題를 바라보고, 道德的 問題를 논의하며, 道德的 決定을 내리는 知的인 訓練過程에 국한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낳기도 하였다. 道德性 및 道德教育에 대한 지식 위주의 單純論理的 接近이 가져온 폐해는 道德的 知識과 行動의 遊離라는 根本的인 문제의 惹起와 더불어, 教育課程 改編 때마다 교과로서의 道德科의 成果 및 存在 意義 自體가 의심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Lickona의 統合的 道德教育은 우리의 道德教育 방향을 設定하는데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많은 示唆點을 주고 있다.

첫째, 모든 教師는 그 自體가 하나의 倫理的 스승이 되어야 하며, 學生들의 役割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平凡한 事實이다.

둘째, 道德教育에 있어서 學級 담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급 담임은, 학생들을 반드시 그들을 道德的 人格體

46) 박병기·추병완 共著(1996), 「倫理學과 道德教育」, 인간사랑, pp. 334-370 要約.

로 해야 한다.

셋째, 그의 통합적인 人格의 概念은 道德科 혹은 倫理科 教育의 目標을 設定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端緒들을 提供하고 있다.

넷째, Lickona의 道德教育에 관한 論議들은 하나의 共同體로서의 教室과 學校의 重要性을 示唆해 주고 있다.

다섯째, Lickona의 道德教育論은 學校와 學父母, 그리고 地域社會의 有機的인 協助體制의 필요성을 提案하고 있다.

2. 靑少年의 意識과 行動에 관한 分析

社會統制論者들은 사람들이 높은 逸脫動機를 갖는다고 主張한다. 허어치(Hirschi)의 統制理論⁴⁷⁾은 이를 潛在的인 法律違反者라고 표현하면서, 사회 成員들이 非行을 저지르는 것은 개인에게 非行을 強固(strong)하는 어떤 信念이 있어서가 아니라, 個人과 社會와의 結束의 弱化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그의 統制理論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規範的 制度의 存續을 假定하고, 이러한 規範을 위반하는 원인은 社會의 個人에 대한 拘束力이 弱化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Hirschi에 의하면 非行少年들은 정상적인 소년들보다 부모에 대한 愛着(Attachment)이 약하고, 장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낮으며, 학교에 관련된 활동에의 참여(Involvement)가 低調함은 물론,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一連의 規準에 잘 同調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경훈⁴⁸⁾도 청소년들이 가지는 社會的 結束(social bond)의 정도와 非行과의 관계 분석에서, Hirschi의 4가지 結束要因(愛着, 受容, 參與, 信念)과 비행과의 관계는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문창하⁴⁹⁾는 靑少年 非行의 원인을 家庭教育의 弱化, 學校教育의 問題, 既成世代들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靑少年들을 善導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47) T. Hirschi(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여기서는 玄京勳의 碩士學位論文(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的 結束과 少年 非行의 關係에 관한 一研究」 p. 11에서 再引用.

48) 현경훈(1988), 上揭書, pp. 54-56 要約.

49) 문창하(1996), “靑少年 善導를 위한 課題”, 「教育濟州」, 통권 92호, pp. 26-29. 要約

첫째,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한 空間의 確保와 多樣的인 프로그램의 開發, 각종 靑少年 團體의 활발한 활동과 教育的 機能 提高 등에 대한 社會的 觀心과 行政的 支援이 強化되어야만 한다.

둘째, 교육을 보는 根本的인 視角이 바뀌어야 한다.

셋째, 健全한 靑少年 文化를 育成·發展시키는 일도 急先務이다.

넷째, 대립된 價値觀에서 오는 갈등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統一的 自我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한편, 韓國國民倫理學會⁵⁰⁾는 家庭의 機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強調하고 있다.

가정은 基本的인 社會制度로서의 代表的인 일차 집단이며, 社會統制의 가장 效果的인 媒介體(mediator)이다. 正常的인 가정은 家族成員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慾求를 충족시키는 바, 특히 아동의 成長과 發展에는 거의 絶對的인 영향을 주며 그것은 아동에 대한 物理的 保護뿐만 아니라, 非公式的 教育訓練, 文化의 傳達, 道德的·倫理的 理想과 사물에 대한 知識의 傳達, 그리고 人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은 社會化(socialization)라는 社會的 메카니즘(mechanism)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권이중⁵¹⁾도, “道德的·人間的 意識 形成은 제 1차 社會化 過程을 거치는 가정 생활에서 부모로부터 意識的·無意識的으로 靑소년들의 規範·道德意識 체계가 형성된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이 의식 세계를 內面化하는 데 있어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⁵²⁾가 1994년 10대 靑소년 4천 여 명을 대상으로 意識調查를 한 결과에 의하면, 靑소년들의 自我意識 영역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滿足度는 40%, 家族 倫理 영역 중 부모와 자식간에 친구처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82%가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어 부모와 權威的이고 垂直的인 관계보다 情的이고 水平的인 관계를 希求하고 있음도 관찰되고 있었다. 그리고 社會意識 영역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滿足度는 14.%로 극히 낮았고, 教育觀에서는 전체 調查 對象者의 83.5%가 적어도 大學 教育을 받아야 圓만한 社會生活를 營爲할 수 있다고 認識하고 있었다. 공

50) 韓國國民倫理學會編(1994), 「國民倫理學概論」, 螢雪出版社, p. 258.

51) 권이중(1995), 前掲書, p. 45.

52) 권이중(1995), 前掲書, pp. 46-47 要約.

부에 대한 壓力感에서는 初等學生 55.3% 中學生 74.5% 高等學生 77.2%가 학교 공부가 지겨울 때가 많다고 應答해 上級學校로 進學함에 따라 入試 爲主의 授業이 큰 心理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진선⁵³⁾도 아동의 가정 환경과 成就動機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취동기 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 중에서 12%가 가정의 物理的 環境, 22%가 가정의 心理的 環境으로 나타나 가정 환경이 아동의 成就動機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고 하면서 아동의 成就動機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 환경을 잘 造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가정의 붕괴 또는 약화는 그 자체가 사회 문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靑少年의 非行, 犯罪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대부분의 脫線行爲에 관련된 조사 연구 중, 특히 非行의 경우는 家庭的 側面이 큰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다음은 靑少年 非行과 豫防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김서호⁵⁴⁾는 「居住地域에 따른 家庭環境과 非行誘惑과의 關係」란 그의 論文에서, 가정 환경 변인 중 物理的인 변인보다는 心理的인 변인이 아동의 非行誘惑(delinquency temptation)에 더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며, 合理的인 養育態度和 愛情的이고 激勵的인 분위기가 아동의 비행 예방은 물론 올바른 생활태도 형성에 기여한다고 論議하고 있다. 또한 非行誘惑의 下位變因인 행동장애, 인성장애, 未成熟이 아동의 비행과 相關關係가 높았고, 특히 아동의 非行誘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下位變因은 行動障礙, 未成熟의 順이라고 했다. 이는 早期 非行豫測(the early prediction of delinquency)의 측면에서 행동장애나 미성숙의 症候가 있는 아동은 非行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음을 示唆해 주고 있었다.

한 사회의 倫理的·法的 規範에서 벗어나는 逸脫行動은 모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로 그 동안의 集中的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對處 方案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靑少年 非行의 慢性的인 逸脫行動의 예방에 대한 방안은 社會的 關心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도되었던 非行 靑少年의 豫防 方案들은 그 효과가 대체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靑少年 非行에 대한 矯正 및 治療方案의 부진함은 다음 두 가

53) 김진선(1986), 前掲書, p. 37.

54) 김서호((1992), “居住地域에 따른 家庭環境과 非行誘惑과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p. 66.

지 要因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靑少年 非行은 여러 가지 個人的·社會的 要因이 複合的으로 작용한 결과로, 어느 한 가지 측면에만 焦點을 둔 矯正·治療方案으로서는 滿足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예컨대, 集中的인 心理治療를 통하여 反社會的 行動을 억제할 수 있는 內的 動機를 크게 향상시켰다 하더라도 社會制度圈 안에서 受容하지 않음으로써 심한 挫折을 겪게 된다면 다시 反社會的 行動을 하게 될 確率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靑少年 非行을 效果的으로 減少시키기 위해서는 學校, 家庭, 社會 등 이들이 접하고 있는 여러 活動의 場에서 동시에 개입할 必要性이 있다.

둘째, 靑少年 非行은 短期間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長期間에 걸쳐 漸次的으로 造形되고 強化된 行動性向의 결과이다. 따라서 反社會的行動性向이 굳어지기 시작한 靑少年期보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初期, 혹은 그 以前에 介入하는 것이 더욱 效果的일 것이다. 少年院이나 기타 矯正施設에 收監된 集團을 對象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成果를 얻기 어려웠던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心理學的 觀點에서 볼 때 靑少年 非行은 社會의 規範을 內面化하여 이에 따라 行動을 조절하는 能力, 즉 道德性的 發達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靑少年 非行에 대한 가장 根本的인 대책은 문제가 발생하기 以前에 道德性的 發達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이를 沮害할 수 있는 要因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道德性的 增進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靑少年 非行에 대한 介入의 시점을 문제가 발생한 靑少年期에 局限시키지 않고 그 이전의 發達過程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家庭, 學校 및 地域社會에서 시행될 수 있는 豫防的 性格의 프로그램들을 積極的으로 활용함으로써 反社會的 行動에 露出될 가능성을 낮추고 긍정적인 行動性向을 길러 주고 適應的인 行動樣式을 提示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報償 經濟制度(Token Economy System)을 이용한 行動修正 프로그램은 靑少年들의 學業指導와 生活指導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Garet, 1985; Jesness, 1975). 그 중 널리 알려진 예인 CASE(contingencies for special education)에서는 學業遂行을 촉진시키고 社會行動을 修正하기 위하여 補償制度(Token Economy System)를 실시한 결과 (Cohen and Filipczak, 1971), 참여한 靑少年들의 學業成就水準이 뚜렷하게 향상되고 出所 1년간 再犯率이 76%에서 26%, 出所 2년간의 再犯率은 36%로 減少하였다. 行動治療가 강화와 특권

을 比較的 철저하게 統制할 수 있는 少年院 등의 시설에서 실시되었을 경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行動修正의 強化 방안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Kohlberg⁵⁵⁾의 道德發達理論을 토대로 道德的 思考의 성숙을 도모하는 道德推論訓練 프로그램은 道德的 葛藤狀況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道德的 思考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이들 프로그램들은 道德行動의 強化 및 反社會的 行動의 抑制를 목표로 開發된 여러 프로그램 중 가장 有望한 것으로 活用 可能性을 적극적으로 研究・檢討할 필요가 있다.⁵⁶⁾

靑少年期の 사회화의 방법과 도덕적 발달에 대해 論議해 보고자 한다.

Tapp과 Levine⁵⁷⁾은 ‘어떤 認知的 이해가 어떤 방법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그의 연구에서, ‘사람이 道德的 쟁점을 상당한 수준으로 概念化하고 道德的 과정을 적절하게 公式化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서, 항상 이러한 公式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청소년들은 상당한 위협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확고한 道德的 原則에 따라 행동하는가 하면, 다른 청소년들은 유혹이나 集團의 압력에 쉽게 굴복한다.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은 內的인 굴복보다는 外的 制裁의 가능성에 더 많이 道德的 良心이 좌우됨을 보이고 있어, 知識 자체로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아주 세련된 지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相應하

55) 道德性에 대한 體系的인 研究의 契機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役割을 한 것이 Lawrence Kohlberg의 道德發達에 대한 理論이다. Kohlberg(1969, 1978)는 道德發達의 核心이 道德的 問題에 관하여 推論하는 認知過程의 成熟에 있다고 보고, 道德推論過程의 發達을 3水準 여섯 段階로 나누어 詳細히 記述하였다. Kohlberg가 記述한 道德發達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因襲以前 水準(Preconventional level)이다. 이 수준에서는 1段階인 ‘處罰의 回避와 服從의 道德性’과 2段階인 ‘道具的 個人主義 道德性’의 時期이다. 둘째, 因襲水準(Conventional level)의 水準이다. 이 시기는 3段階인 ‘對人關係의 調和-親愛主義的 道德性’과 4段階인 ‘法과 秩序指向 道德性’이다. 셋째, 因襲以後 水準에서는 5段階인 ‘社會契約指向 道德性’과 6段階 ‘普遍的 倫理原則의 道德性’이다. Piaget가 認知構造가 質的으로 明確하게 다른 네 개의 段階를 거쳐서 發達된다고 假定하였듯이, Kohlberg는 道德的 問題에 대한 思考 역시 質的으로 서로 다른 認知的 構造를 갖춘 段階들을 거쳐 발달한다고 보았다.

56) 李勳求・吳慶子 共著(1994), 前掲書, pp. 123-138 要約.

57) Tapp, J. L., & Levine, F. J.(1972), "Compliance from kindergarten to college : A speculative research not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pp. 233-249. 參照. J. J. Conger 著, 權彞鍾 譯(1992), 前掲書, pp. 620-622에서 再引用.

는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고 하고 있다.

良心의 발달은 청소년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學齡期 전에도 아동은 이러한 발달의 證據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즉 용납되는 행동의 기준체계를 갖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며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罪惡感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면 良心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Freud의 見解에 따르면, 양심은 同一視의 產物이며 동일시가 진행됨에 따라 超自我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부모로부터 道德的 基準과 禁忌(taboo)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그가 부모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그의 부모에 대한 同一視를 강화시킨다. 그는 부모가 그를 벌하리라고 믿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自責을 하거나 不安과 罪惡感을 느끼며, 또한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하여 그는 違反者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모가 제공하는 모델의 종류와 그들이 사용하는 訓育의 종류가 어린이의 良心發達의 본질과 범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Martin Hoffman⁵⁸⁾은 道德觀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訓育樣式을 權力型(power-assertive)과 非權力型(nonpower-assertive)의 두 가지로 구별하고, 비권력적인 유형은 다시 사랑-기피 기술(love-withdrawal techniques)과 誘導的 方法(induction : 부모가 아동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이유나 근거를 설명해 줌)으로 나누는데, 이 중 가장 바람직한 훈육방법은 誘導라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狀況의 실질적인 實在를 지적해 주거나 不適切한 행동이 아동이나 타인에게 얼마나 해로운가를 지적해 준다. 誘導는 成熟이나 成長을 위해 아동의 自尊心과 노력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유도적 방법은 적극적인 自我正體(self-identity)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權威(authority)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들은 아동에게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認知的 資源을 공급한다. 愛情과 결합된 誘導的 訓育은 내적인 道德觀과 내적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한 自責感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지며, 이처럼 자신의 객관적 가치와 기준이 확고함으로써 잘못된 압력에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은 물론 타인의 福祉에 관심을 갖는 個體(청소년 혹은 성인)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58) M. L. Hoffman(1975), "Moral internalization parental power and the nature of parent-child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228-239 參照. J. J. Conger 著, 權毅鍾 譯 (1992), 前掲書, p. 607에서 再引用.

또한 Hoffman은 道德的 內面化는 性別에 差異가 存在한다고 그의 연구 결과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道德的 內面化 過程(process of moral internalization)의 性別差⁵⁹⁾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女性의 道德性은 더욱 고도로 내면화되고 人本主義的인 傾向이 어느 정도 있다. 10세~12세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위반이 여자에게는 罪責感을, 남자에게는 탄로와 처벌의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여자에게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Hoffman은 이러한 性別差가 소년과 소녀에 대한 養育의 차이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딸에 대해서 더 많은 誘導方法을 사용하며, 民主的으로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것들이 內面的이고 人本主義的인 道德觀을 길러 주는 것 같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性別差가 실제적으로 남자에게는 성취와 성공에 대한 압력으로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一面으로는 사회 全般的으로 通念化된 差別化된 性役割의 強要 自體에든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假說

따라서 本 研究는 그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서의 先行研究文獻들의 이론과 연구 결과에 根據하여 다음과 같은 假說을 설정했다.

〈假說 가의 檢證〉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性別, 학교 所在地,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學力, 職業, 生活程度(소득), 家族構造, 父母 맞벌이 如何에 따라 그들이 지닌 人性이 有意味한 差異를 보일 것이다.

〈假說 나의 檢證〉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에 따른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은 有意味한 差異를 보일 것이다.

〈假說 다의 檢證〉學校와 社會의 環境 作用 變因에 따른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59) M. L. Hoffman(1975), "Sex differences in moral internalization and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720-729 參照. J. J. Conger 著, 權發鍾 譯 (1992), 前掲書, p. 624에서 再引用.

倫理·道德 意識은 有意味한 差異가 있을 것이다.

위의 세 가지의 假說을 基本으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社會的 背景 要因을 가정의 物理的 環境 變因(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 학교와 사회의 環境 作用 變因, 일상 생활에서의 生活態度 등으로 區分하고, 그것들의 相互作用에 따른 相關關係의 有意味 與否, 그리고 6학년생들이 지니고 있는 倫理·道德 意識에 대해서 分析해 보았다.

Ⅲ. 研究 方法

1. 調査對象 標集

本 研究의 調査 對象은 濟州道內 13개 初等學校 6학년생 709 名(남 367명, 여 342명)이다.⁶⁰⁾ 그리고 본 質問紙 檢査는 1997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 동안에 걸쳐서 연구자가 직접 調査 對象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 6학년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表 2>를 對象으로 하여 研究 對象者들의 人性形成에 強化를 주고 있는 가정의 物理的·心理的 環境檢査, 학교와 사회의 作用 變因 등을 6학년생들로 하여금 反應케 했다. 調査 對象 集團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表 2> 調査對象 집단의 學生數

所在地別	學校數	性別	男	女	計
도심지 소재 초등학교	6		218	202	420(59.2%)
외곽지 소재 초등학교	2		55	56	111(15.7%)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5		94	84	178(25.1%)
전 체	13		367(51.8%)	342(48.2%)	709(100%)

2. 測定道具

本 研究는 연구의 필요성에서提起된 問題의 解決에 接近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先行 文獻 및 資料의 분석에 입각하여 說問紙를 제작했다.

따라서 本 研究는,

60) 本 研究의 標集對象은 濟州市와 西歸浦市の 都心地에 위치한 6개 학교의 6학년생, 도시 外廓地에 所在해 農漁村 지역에 가까운 2개 학교의 6학년생, 그리고 邑·面·出張所 소재지 지역에 위치해 있는 5개 학교의 6학년생, 都合 無作爲 709명이며, 本 論文이 의도하는 것은 都市와 農漁村間의 6학년생들에게 內在해 있는 倫理·道德 意識의 差別性을 分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주는 社會的 環境 要因에 관한 研究임을 밝혀 둠.

첫째, 家庭에서 學父母들이 자녀에 대해 實踐中心의 倫理·道德教育을 實踐하는데 따른 방법을 제시해 주고,

둘째, 學校가 靑少年들의 共同體意識을 올바르게 伸張시키는데 適切한 案內役이 되어 주며,

셋째, 靑少年(특히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는 그들 自身の 肯定的 自我觀을 심어 주는데 도움을 줌은 물론,

넷째, 靑소년들의 올바른 人格形成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連繫가 매우 필요함을 밝혀줄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質問紙의 작성은 集合調査法과 配布調査法을 중심으로 주로 量的인 방법을 사용하고, 未洽한 점을 補完하기 위해서 質的인 방법인 電話調査法을 겸용했다.

本 研究에서 측정해야 할 變因은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주는 社會的 變因(variable factor of society)에 관한 것으로,

가. 家庭의 物理的(사회·경제적) 環境 變因

나. 家庭의 心理的 作用 變因

다. 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因 등 세 가지이다.

이를 위해 家庭 環境 檢査로서 家庭의 社會·經濟的 變因과 가정에서의 作用 變因, 그리고 學校와 社會의 作用 變因에 대해서 조사했으며, 本 研究者가 제작한 測定道具(人性形成 背景 要因에 관한 質問紙의 問項 내용 및 構成)는 <表 3>과 같다.

<表 3> 初等學校 6학년생들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주는 社會的 變因 尺度

下 位 變 因	質 問 內 容	問 項 番 號
研究 對象者의 社會的 地位	○ 研究 對象者의 性別	(1)
家庭의 物理的 變因	○ 保護者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經濟水準과 家族構造, 부모의 맞벌이 실태	(2),(3),(4),(5),(6),(7)
家庭의 心理的 作用 變因	○ 가족 구성원끼리의 對話의 量과, 자녀에 대한 관심도, 자녀에 대한 期待感, 家系에 대한 자녀교육, 자녀의 부모에 대한 요구 사항, 부모에 대한 기대감	(8),(9),(10),(11),(12), (13),(14),(15),(16)

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因	○ 학생의 교사에 대한 期待感, 初等學校 6학년생들의 言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그 이유, 그들의 人性形成에 肯定的이거나 否定的으로 영향을 끼치는 變因	(17),(18),(19),(20),(21),(22)
研究 對象자의 倫理・道德 意識	○ 自我 正체감, 장래의 進路에 대한 職業觀의 형성, 敬老孝親 사상의 생성 여부, 公衆道德과 禮儀凡節, 餘暇善用, 勤儉・節約 태도	(23),(24),(25),(26),(27),(28),(29),(30),(31),(32),(33)

가. 家庭의 物理的 環境 變因

家庭의 社會・經濟的 地位의 變因은 학교 所在地(Size of Residence), 보호자의 學力(School Degree of Parent), 職業(Type of Vocation), 生活程度(Living Level of Parents) 등의 물리적 환경과 核家族化와 부모의 맞벌이 實態 등을 알아 보기 위해 研究者가 〈表 4〉와 같이 직접 製作・使用했다. (문항 내용은 부록 참조)

〈表 4〉 가정의 物理的 環境 變因

下 位 變 因	內 容
(2) 학교 소재지	제주시(또는 서귀포시) 도심지 제주시(또는 서귀포시) 외곽지 남제주군(또는 북제주군) 읍・면 소재지나 출장소 소재지
(3) 보호자의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
(4) 보호자의 직업	전문 사무직 -- 의사, 약사, 법조인, 교사, 교수, 공무원, 은행원 등 판매 서비스직 -- 각종 수리 서비스업, 상업, 요식업 등 1차 산업 -- 농업(과수원), 어업, 임업, 축산업 등 2차 산업 -- 공업, 건설업, 광업 등 비숙련 기능직 -- 운전 기사나 미장이 등 단순 기능 노동자 그 외
(5) 가정의 생활수준	아주 부자이다 아주 부자는 아니나,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살고 있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편이다

(6) 核家族化	부모님과 여러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있다 조부모(한 분만도 됨)를 모시고 여러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다 부모님이 안 계심
(7) 父母 맞벌이	부, 모 모두 직장에 나가시거나 사업(장사)을 하신다 아버지만 직장에 나가시거나 사업(장사)을 하신다 어머니만 직장에 나가시거나 사업(장사)을 하신다 그 외

나. 家庭의 心理的 作用 變因

이는 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이 조사 대상이 소속된 家庭 風土와 父母兄弟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이 조사 대상자들에게 成就 壓力, 가정의 情意的태도에 관한 變因, 가정의 集團 性格에 관한 變因 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製作・使用된 질문 내용으로 다음의 <表 5>와 같다.

<表 5> 家庭의 心理的 作用 變因

下 位 變 因 內 容
(8) 가정에서 가족끼리의 대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집니까?
(9) 평소에 부모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0) 부모님께서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11) 부모님과 함께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러 가 본 적이 있습니까?
(12) 성묘를 다녀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길 가장 원하십니까?
(14)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5) 위 (14)번과 관련입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위 (14)번과 관련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울 때가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因

가정 이외의 학교와 사회적 환경은 研究 對象者들의 人性形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작했다. 그들의 人性形成에 肯定的이거나 否定的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웃사람(教師를 포함한 地域社會人)들의 強化 變因을 조사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 <表 6>과 같다.

<表 6> 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因

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因 內容
(17) 현재 학급에서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 담임선생님은 어떤 분이셔야 가장 좋겠습니까?
(18) 자기의 성격이나 옷차림, 언어 및 행동 등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19)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0) 위 (19)번 문항과 관련입니다. 그 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본 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22) 위 (21)번 문항과 관련입니다. 가장 본 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研究 對象者의 倫理·道德 意識

가정, 학교, 地域社會 환경은 하나의 統合體로 共存하면서 청소년이라는 개개인에게 同時的이면서 相互 複合的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을 內面化, 客觀化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外面化, 客觀化하는 과정을 밟으며 성숙해 가는데⁶¹⁾,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어떤 倫理 意識과 道德的 行動을 취하고 있는가를 <表 7>과 같은 내용으로 알아 보았다.

<表 7> 研究 對象者의 倫理·道德 意識

研究 對象者(초등학교 6학년생)의 倫理·道德 意識
(23) 자기의 소질과 취미, 적성을 고려할 때 장차 어떤 직업(일)을 갖기를 원합니까?
(24)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식구 모두 한 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61) 남정길, 前掲書, p. 51.

-
- (25) 웃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합니까?
-
- (26)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지 않아 친구들간에는 의리있는 사람으로 통합니까?
-
- (27) 누가 보든 안보든 교통도덕을 잘 지킵니까?
-
- (28)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길가에 가래침 뱉지 않기 등 공중도덕을 잘 지킵니까?
-
- (29)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잘 정리 정돈합니까?
-
- (30) 장차 어른이 되면 부모님을 모셔서 살겠습니까?
-
- (31) 방과후나 일요일(또는 공휴일)에 자기의 여가 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냅니까?
-
- (32) 용돈을 주로 어떤 데에 쓰고 있습니까?
-
- (33) 장차 어른이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

3. 資料 處理

가. 개인의 모든 검사 결과는 原資料를 채점·종합·분석하고 Cobol Coding Form(Coding Sheet)에 옮겼다.

나. 채점된 자료 중 부분적으로 누락되거나 반응이 기입되지 않은 것은 것은 영점(Number of Zero Observation)으로 表記하여 처리했다.

다. 수집된 자료는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人性形成과 社會的 要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調査 資料의 分析과 解釋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의 下位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했다.

라. 본 연구에 적용된 統計的 方法으로는 평균(M), 標準偏差(SD), χ^2 (Chi-Square) 檢證值 등의 變量分析法를 사용했다.

마. 初等學校 6학년생들의 人性形成과 社會적 強化 要因과의 관계는 조사 대상자들의 頻度(precedure)를 구해서 χ^2 (Chi-Square) 檢證을 통해서 分析하여 相關關係의 有意味 與否를 밝혔다.

IV. 結果 및 解釋

앞에서 행해진 연구의 결과에 따라 設定된 假說을 檢證하기 위해서 統計·處理한 分析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家庭의 物理的 環境 變因의 檢證

〈假說 가의 檢證〉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性別, 학교 所在地,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學力, 職業, 生活程度, 家族構造, 父母 差別에 따라 그들이 지닌 人性이 有意味한 差異를 보일 것이다.

우선, 研究 對象者인 초등학교 6학년생(709명)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가정의 物理적 環境 變인들의 頻度 分布를 분석해 보았다. 〈表 8〉은 가정의 物理的 環境의 下位 變因別 頻度(frequency), 백분율(%), 평균(M, Mode), 표준편차(SD, Standard Deviation)를 나타낸 것이다.

〈表 8〉 가정의 物理的 環境의 下位 變因別 頻度

하 위 변 인	하위변인 문항 내용	빈도	백분율	M	SD
학 교 소재지	제주시(또는 서귀포시) 도심지	420	59.2	1.659	.853
	제주시(또는 서귀포시) 외곽지	111	15.7		
	남제주군(또는 북제주군) 읍·면·출장소 소재지	178	25.1		
보호자 학 력	중졸 이하	79	11.1	2.202	.679
	고졸	381	53.7		
	대졸 이상	240	33.9		

보호자 직업	전문 사무직	214	30.2	2.444	1.458
	판매 서비스직	231	32.6		
	1차 산업	117	16.5		
	2차 산업	52	7.3		
	비숙련 기능직	54	7.6		
	그 외	38	5.4		
생활 수준	아주 부자	16	2.3	2.011	.237
	아주 부자는 아니나 알뜰하게 사는 편	669	94.4		
	가난하게 사는 편	24	3.4		
核家族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같이 산다	622	87.7	1.135	.378
	조부모(두 분 중 한 분만도 됨)를 모시고 같이 산다	78	11.0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친척이나 다른 사람과 같이 산다	9	1.3		
父 母 맞벌이	부.모 모두 직장에 나가시거나 사업(장사)을 하신다	450	63.5	1.403	.576
	아버지만 직장에 나가시거나 사업(장사)을 하신다	236	33.3		
	어머니만 직장에 나가시거나 사업(장사)을 하신다	20	2.8		
	그 외	3	0.4		

가. 가정의 物理的 環境 變因에 따른 6학년생들의 人性差

〈表 9〉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을 下位 變因別로 χ^2 (Chi-Square)檢證値를 나타내어 남·녀간 差의 意味度(Significance)를 알아 보았다.

〈表 9〉 가정의 物理的 環境 變因에 따른 性別差 현황

下位 變因 區 分	학 교 소재지	보호자 직업	보호자 학 력	생활수준	核家族化	父母맞벌이
χ^2	0.2991	1.5322	8.4927	11.3126	3.0312	7.9330
Significance	—	—	—	P<.01	----	----

위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에 따라 그들이 지닌 人性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假說의 檢證에서는, 가정의 生活水準에서만 有意味한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 변인에서는 有意味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男女間에 人性差가 있을 것이라는 相對的 假說은 棄却(reject)되었다.

그리고 다음의 <表 10>은 p. 36의 <表 3> 초등학생들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주는 社會的 環境 變因 척도 중, 하위 변인인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 가정의 心理的作用 변인, 학교와 사회의 心理的作用 변인, 연구 대상자인 초등학교 6학년생 자신들의 倫理·道德意識 등 각 領域別 변인의 配點을 電算處理化한 결과이다.

<表 10> 사회적 변인의 각 領域別 變因에 대한 가정의 物理的 環境 하위 변인간의 相關關係

環境下位變因 領域別變因		성 별	학 교 소재지	보호자 직 업	보호자 학 력	생활수준	核家族化	父母맞벌이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	M	9.4781	9.4781	9.4757	9.4745	9.4781	9.3333	9.4774
	SD	1.5842	1.5147	1.5889	1.5854	1.5842	1.8708	1.5852
가정의 심리적 작 용 변인	M	13.5910	13.5910	13.5957	13.5694	13.5910	13.5910	13.6003
	SD	4.0403	4.0403	4.0485	4.0147	4.0403	4.0403	4.0355
학교와 사회의 심 리적 작용변인	M	16.0508	16.0508	16.0500	16.0552	16.0508	16.0508	16.0537
	SD	3.8734	3.8734	3.8225	3.8806	3.8734	3.8734	3.8753
연구 대상자의 倫 理·道德意識	M	23.2384	23.2384	23.1943	23.2351	23.2384	23.2384	23.2302
	SD	4.6806	4.6806	4.6582	4.6881	4.6806	4.6806	4.6789

위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6학년생)의 倫理·道德意識의 平均 점수(M:23점帶)가 제일 높게 나타난 반면에, 표준편차(SD=4.6점帶)가 높아 信賴度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表 11>은 사회적 환경의 각 영역별 변인에 대한 가정의 물리적 환경 下位 變因과의 關係를 具體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全般的으로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 변인(SD:1점帶)은 頻度 分布에서 差異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SD:4점帶)과 학교·사회 심리적 작용 변인(SD:3점帶), 자기 자신들이 지니

고 있는 倫理·道德 意識 變인(SD:4점帶)은 偏差가 相對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家庭의 物理的 環境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變인과 家庭의 心理的 作用 下位 變因간의 상관관계는 <表 11>과 같다.

<表 11> 가정의 物理的 環境 하위 變인과 가정의 心理的 作用 하위 變인과의 相關關係

物理環境變因 心理作用變因	학 교 소재지	보호자 직 업	보호자 학 력	생활수준	核家族化	父母맞벌이
(8) 가정에서 가족끼리의 대화 시간	10.5196 --	13.8703 --	149.3779 P<.001	26.7813 P<.001	8.4530 --	22.6175 --
(9)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사항	16.3365 --	62.9301 P<.001	46.9871 P<.05	14.1567 --	6.0368 --	11.8510 --
(10)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직업관	21.9608 P<.05	51.8652 P<.001	46.1188 P<.05	47.6349 P<.001	13.3326 --	65.1986 P<.001
(11) 先墓의 소재지를 아는지의 여부	8.5382 --	11.8494 --	37.5872 --	17.9598 --	13.3290 --	75.5017 P<.001
(12) (11)의 응답 여부에 대한 이유	39.6513 P<.001	20.4232 --	37.8018 --	8.8300 --	3.4940 --	24.3092 --
(13) 자녀의 부모에 대한 요구 사항	24.3333 P<.05	26.8325 --	26.9512 --	21.4916 P<.05	16.0418 --	28.0297 --
(14)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긍심 여부	23.1145 P<.05	17.0656 --	31.9968 --	59.6747 P<.001	6.0878 --	31.1653 P<.05
(15) (14)의 응답 여부에 관한 이유	24.8228 P<.05	16.6229 --	70.8452 P<.01	50.7439 P<.001	9.8866 --	24.3547 --
(16) (14)의 응답 여부에 관한 이유	17.4775 --	11.0505 --	43.3793 P<.05	57.1115 P<.001	6.3407 --	27.4595 --

※ 위의 수치들은 χ^2 (Chi-Square) 係數임.

위 <表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變因間에 가장 有意味한 차이를 보이는 相關 變因들은 다음과 같다.

가족끼리의 對話 時間은 보호자의 학력(P<.001)과 가정의 생활 수준(P<.001)에서 有意味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의 자녀에 관심은 보호자의 직업(P<.001)과 학력(P<.05)에서 有意味한 차이를 보였고, 先墓의 위치를 아는지의 여부는 맞벌이 父母((P<.001)와 학교 소재지(P<.001)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

한 요구사항은 학교 소재지($P < .05$)와 생활수준($P < .05$)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自矜心 여부는 학교 소재지($P < .05$)·생활수준($P < .001$)·맞벌이 父母($P < .05$)에서 가장 有意味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子女의 父母에 대한 自矜心은 학교 소재지($P < .05$)와 보호자 학력($P < .01$), 생활수준($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끄럽다고 여기고 있는 변인은 보호자 학력($P < .05$)과 생활수준($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職業觀에 대해서는 核家族化의 변인을 제외하고는 家庭의 물리적 環境의 條件과 상관없이 全般的으로 有意味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가정의 物理的 環境 변인과 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因과의 有意味한 相關關係의 有無에 대해서 알아 본 分析表이다.

〈表 12〉의 分析 資料는 학교와 사회의 環境 作用 變因을 下位變因別로 평균(M), 표준편차(SD), χ^2 檢證, 意味度를 나타낸 것이다.

〈表 12〉 학교와 사회의 心理的 作用 變因과 가정의 物理的 環境 變因과의 相關關係

物理環境變因 心理作用變因	학 교 소재지	보호자 직 업	보호자 학 력	생활수준	核家族化	父母맞벌이
(17) 6학년생들이 바 라 는 教師像	19.5650 --	24.7745 --	30.8073 --	4.7023 --	11.9417 --	33.8488 --
(18) 言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人物	33.2211 $p < .01$	46.1696 $p < .01$	40.9768 --	9.0409 --	24.2962 $p < .05$	44.1305 $p < .05$
(19) 가장 좋아하는 人 物	39.2868 $p < .001$	25.8666 --	43.3202 --	25.2911 $p < .05$	31.7565 $p < .01$	89.2972 $p < .001$
(20) (19)에 대한 理 由	4.3934 --	6.9102 --	54.3371 $p < .01$	29.4986 $p < .01$	17.2727 --	71.8998 $p < .001$
(21) 가장 싫어하는 人 物	26.1486 $p < .05$	25.2558 --	45.4278 --	23.7465 $p < .05$	29.3970 $p < .01$	80.5184 $p < .001$
(22) (21)에 대한 理 由	33.1514 $p < .001$	32.6448 $p < .05$	46.6514 --	11.3297 --	5.7846 --	72.2035 $p < .001$

※ 위의 수치들은 χ^2 (Chi-Square) 계수임.

〈表 12〉에서 처럼, 6학년생들이 자기 학급에서 담임교사에게 바라는 教師像은

가정의 社會·經濟的 地位 變因인 物理的 環境 變因에서 有意味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그들의 言行에 영향을 주는 인물,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나 싫어하는 인물, 그것들의 이유에 대한 應答 내용 등은 有意味 程度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p. 52. 4.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에 대한 分析 參照.)

다음의 〈表 13〉은 가정의 物理的 環境 變因과 초등학교 6학년생의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度를 분석한 것이다.

〈表 13〉 가정의 物理的 環境 變因과 초등학교 6학년생의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

物理環境變因 心理作用變因	학 교 소재지	보호자 직 업	보호자 학 력	생활수준	核家族化	父母맞벌이
(23) 장래의 職業觀	19.6166 p<.05	41.4664 p<.01	95.4057 p<.001	20.7907 p<.05	17.3610 --	35.6808 p<.05
(24) 祖父母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생각	18.3054 --	34.0044 p<.05	30.6199 --	11.1835 --	14.1108 --	33.5244 --
(25) 웃어른에 대하여 예의바른 행동	4.8195 --	11.3176 --	14.5812 --	17.1933 p<.01	4.3941 --	10.4236 --
(26) 친구들 간에 義理있는 사람	2.7059 --	9.2959 --	21.3029 p<.05	11.9308 p<.05	13.1343 p<.05	10.1891 --
(27) 交通道德을 준수하는 일	20.5743 p<.01	15.3487 --	20.8477 --	1.4133 --	1.5861 --	8.5864 --
(28) 公衆衛生을 청결하게 하는 일	19.6038 p<.01	10.0908 --	18.4218 --	2.7325 --	8.0048 --	22.7293 p<.05
(29) 자기 주변을 整理·整頓하는 일	9.6281 --	2.3672 --	15.2704 --	5.6720 --	5.7309 --	17.4871 --
(30) 장차 부모님을 모시는 일	2.9479 --	5.5847 --	12.0047 --	3.2027 --	1.8792 --	5.8810 --
(31) 餘暇善用 태도	19.7726 p<.05	41.9889 p<.01	34.3861 --	16.0301 --	10.4087 --	35.4674 p<.05
(32) 용돈 사용	21.3712 p<.05	29.5877 p<.05	48.4957 p<.05	24.9094 p<.05	14.6103 --	12.8493 --

(33) 장래의 人間像	62.4947 p<.001	40.2266 p<.001	67.0140 p<.001	5.8656 --	3.5738 --	35.4641 p<.05
--------------	-------------------	-------------------	-------------------	--------------	--------------	------------------

※ 위의 수치들은 χ^2 (Chi-Square) 계수임.

위의 〈表 13〉의 가정의 物理的 環境 變因과 초등학교 6학년생의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래의 職業觀에서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에서 核家族化의 변인을 除外한 所在地·職業·學力(P<.001)·生活水準·父母맞벌이 등에서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고, 친구들간의 義理에서는 학력·생활수준·핵가족화에서 상관관계, 餘暇善用 태도에서는 학교 소재지·보호자 직업·부모맞벌이와 有意味한 相關度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용돈 使用에 있어서는 소재지·직업·학력·生活水準에서, 장래의 人間像에서는 所在地(P<.001)·職業(P<.001)·學力(P<.001)·父母의 맞벌이 여부(P<.05)와 상당한 相關關係를 맺고 있다.

2. 家庭의 心理的 作用 變因의 檢證

〈假說 나의 檢證〉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은 有意味한 差異를 보일 것이다.

가.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에 따른 男女間 人性의 差異

다음 〈表 14〉는 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을 下位變因別로 평균(M), 표준편차(SD), χ^2 檢證, 意味度(Significance)를 分析해서 性別差의 相關關係를 나타낸 것이다.

〈表 14〉 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에 따른 性別差 意味度

下 位 變 因	Sex	N	M	SD	χ^2	Significance
(8) 가정에서 가족끼리의 대화 시간	남	367	1.795	0.886	11.2025	p<.05
	여	342				

(9)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사항	남 여	367 342	1.924	0.983	8.2824	--
(10)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직업관	남 여	367 342	1.827	1.363	43.4646	p<.001
(11) 先墓의 소재지를 아는지의 여부	남 여	367 342	2.099	1.217	45.1750	p<.001
(12) (11)의 응답 여부에 대한 이유	남 여	367 342	1.264	1.676	14.1872	p<.05
(13) 자녀의 부모에 대한 요구 사항	남 여	367 342	1.986	1.295	13.5347	p<.05
(14)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긍심 여부	남 여	367 342	1.361	0.742	8.3087	--
(15) (14)의 응답 여부에 관한 自矜心이유	남 여	367 342	1.210	1.313	20.5415	p<.01
(16) (14)의 응답 여부에 관한 羞恥心이유	남 여	367 342	0.126	0.631	2.4860	--

〈表 14〉에서는, 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에 따른 性別差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의 대화시간(p<.05), 부모의 자녀에 대한 職業觀(p<.001), 先墓의 위치를 아는지의 여부(p<.001)와 그에 대한 理由(p<.05),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요구 사항(p<.05)과 부모님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자랑스러운 理由(p<.01)에서는 男女間에 의미있는 差異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關心 事項($x^2 = 8.2824$),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自矜心 여부($x^2 = 8.3087$)와 그에 관한 理由($x^2 = 2.4860$)에 있어서는 男女間에 意味있는 差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家庭의 心理的 作用 變因과 倫理·道德 意識과의 關係 檢證

(1)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의 男女間の 差

다음은 연구 대상자인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倫理·道德 意識이 男女間에 有意味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表 15〉와 같이 分析

해 보았다.

〈表 15〉 初等學校 6學年生들의 倫理・道德 意識의 性別差 意味度

環 境 變 因	Sex	N	χ^2	Significance
(23) 장래의 職業觀	남 여	367 342	27.0100	$p < .001$
(24) 祖父母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생각	남 여	367 342	8.9362	--
(30) 장차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생각	남 여	367 342	15.4711	$p < .001$
(31) 餘暇善用	남 여	367 342	97.3966	$p < .001$
(32) 용돈 사용	남 여	367 342	38.5837	$p < .001$
(33) 장래의 人間像	남 여	367 342	11.4535	$p < .05$

위 〈表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6학년생들의 男女間에는 장래의 職業觀($p < .001$), 장차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p < .001$), 餘暇善用($p < .001$), 용돈 사용($p < .001$), 將來의 人間像($p < .05$)에서 有意味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조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생각에는 有意味한 차이 없이 共通의인 思考를 지니고 있었다.

(2) 日常生活의 生活態度에 있어서의 人性差

〈表 16〉 初等學校 6學年生들의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의 性別差

下位 領域別 變因	Sex	N	M	SD	D.F.	M.S	F
(25)~(29)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	남	367	9.6403	1.6468	367	911.995	8.0538qq
	여	342	9.3041	1.4972	342	849.870	

D.F. : Degree of Freedom, M.S : Mean Squares qq $P < .01$

위의 <表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日常生活에서의 생활 태도(웃어른에 대한 禮儀, 친구간의 義理, 交通道德 지키기, 깨끗한 우리 사회 만들기, 자기 주변 정리 정돈 등)에서는 가정·학교·사회의 物理的 環境이나 心理的 作用의 영향을 받아 男女間에 有意味한 差異(F值 8.0538, $P < .01$)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表 17>은 6학년생들이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에 따라 日常生活에서 어떤 生活態度를 보이는가에 대하여 그 相關關係의 意味度を 조사해 본 것이다.

<表 17> 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과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와의 相關關係

心理作用變因 生活態度變因	(8) 대화시 간	(9) 부모관 심	(10) 직업갖 기	(11) 省墓경 험	(12) (11)의 이유	(13) 학생요 구	(14) 부모자 랑	(15) 자랑이 유	(16) 羞恥이 유
(25) 웃어른에 대하여 예의바른 행동	13.2774 --	16.2326 --	35.1511 $p < .01$	16.4988 --	42.5992 $p < .001$	29.7234 $p < .05$	37.7173 $p < .01$	33.3540 $p < .05$	14.1381 --
(26) 친구들 간에 義 理있는 사람	10.5533 --	13.2632 --	13.6950 --	26.2732 $p < .01$	26.4360 $p < .01$	24.0735 $p < .05$	16.0311 $p < .05$	23.5776 $p < .05$	9.4200 --
(27) 交通道德을 준수 하는 일	14.7059 --	13.0778 --	12.2192 --	8.5104 --	9.5341 --	20.7126 --	19.0350 --	29.6750 $p < .05$	6.6663 --
(28) 公衆衛生을 청결 하게 하는 일	9.0913 --	27.3901 $p < .05$	22.0638 --	9.2070 --	17.8288 --	86.2171 $p < .001$	138.301 $p < .001$	18.0261 --	18.1050 --
(29) 자기 주변을 整 理·整頓하는 일	18.9894 --	20.7217 --	14.6379 --	16.8594 --	11.2337 --	34.2722 $p < .05$	33.0762 $p < .01$	31.6882 $p < .05$	10.1849 --

※ 위의 수치들은 x^2 (Chi-Square) 계수임.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 중, 가정에서 家族끼리의 對話時間과 부모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理由는 6학년생들이 日常生活에서 행하는 생활태도의 變因들과 意味있는 相關關係가 없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반면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關心度는 公衆衛生 청결($p < .05$)과 유의미한 관계를, 부모의 자녀에 대한 職業觀은 웃어른에 대한 禮儀($p < .01$)와 유의미한 관계를, 省墓 경험은 친구간에 義理있는 사람($p < .01$)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省墓에 참여하지 않는 理由는 웃어른에 대한 禮儀($p < .001$)와 친구간에 義

理있는 사람($p < .01$)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학생의 부모에 대한 요구 사항은 웃어른에 대한 禮儀($p < .05$)·친구간에 義理있는 사람($p < .05$)·公衆衛生 청결($p < .001$)·자기주변 整理整頓($p < .05$)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自矜心은 웃어른에 대한 禮儀($p < .01$)·친구간에 義理있는 사람($p < .05$)·公衆衛生 청결($p < .001$)·자기주변 整理整頓($p < .01$)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부모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는 理由는 웃어른에 대한 禮儀($p < .05$)·친구간에 義理있는 사람($p < .05$)·交通道德 遵守($p < .05$)·자기주변 整理整頓($p < .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6학년생들이 갖는 일상생활의 生活態度 중에서 家庭의 심리적 작용 변인과 가장 有意味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웃어른에 대한 禮儀바른 행동과 친구들간에 義理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에 따라 그들이 지니게 될 倫理·道德 意識간에 유의미한 相關關係가 있는지의 與否를 알아 보았다.

〈表 18〉 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과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

心理作用變因 倫理道德意識	(8) 대화시 간	(9) 부모관 심	(10) 직업감 기	(11) 省墓경 험	(12) (11)의 이유	(13) 학생요 구	(14) 부모자 랑	(15) 자랑이 유	(16) 羞恥이 유
(23) 장래의 職業觀	25.9078 --	50.4643 $p < .05$	84.6186 $p < .001$	30.4444 --	63.0737 $p < .001$	53.7221 $p < .05$	61.1486 $p < .001$	56.3697 $p < .05$	44.6425 $p < .05$
(24) 祖父母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생각	32.6761 --	44.1380 $p < .05$	59.8634 $p < .01$	56.8744 $p < .01$	77.5180 $p < .001$	56.7829 $p < .05$	33.7380 --	58.6821 $p < .05$	18.3156 --
(30) 장차 부모님을 모시는 일	13.8685 --	25.5800 $p < .01$	20.2052 $p < .05$	14.3232 --	17.6616 $p < .05$	59.2588 $p < .001$	48.6870 $p < .001$	66.8256 $p < .001$	31.0081 $p < .001$
(31) 餘暇善用	24.3063 --	57.7130 $p < .01$	61.8064 $p < .01$	20.9964 --	29.9457 --	102.589 $p < .001$	253.170 $p < .001$	58.6931 $p < .05$	41.7214 $p < .05$
(32) 용돈 사용	31.0061 --	23.3232 --	35.0565 --	40.1458 --	20.8687 --	91.9338 $p < .001$	232.168 $p < .001$	57.6865 $p < .05$	14.5114 --
(33) 장래의 人間像	10.1974 --	25.1503 --	62.1198 $p < .001$	22.8550 --	17.6854 --	84.0717 $p < .001$	131.837 $p < .001$	38.5207 --	66.8539 $p < .001$

※ 위의 수치들은 χ^2 (Chi-Square) 계수임.

앞의 〈表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과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간에는 有意味한 相關關係가 있었다.

가정의 心理적 作用 變인 중, 가족들끼리의 대화시간은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의 모든 변인과 意味있는 相關關係를 보이지 않았고, 부모님의 關心度는 6학년생들의 장래의 직업관($p < .05$)·祖父母 모시기($p < .05$)·장차 부모님 모시기($p < .01$)·餘暇善用($p < .01$)과 有意味한 關係를 보였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職業觀은 6학년생 본인이 희망하는 職業觀($p < .001$)·祖父母 모시기($p < .01$)·장차 부모 모시기($p < .05$)·餘暇善用($p < .01$)·장래의 人間像($p < .001$)과 有意味한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省墓 경험은 장래의 직업관($p < .001$)·祖父母 모시기($p < .01$)·장래의 직업관($p < .001$)·장차 부모 모시기($p < .05$)와 有意味한 상관關係를 보여 주고 있다.

가정의 心理적 作用 變인과 倫理·道德 意識과의 상관關係 중, 학생의 부모에 대한 요구 사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 內面的 倫理·道德 意識을 綜合한 性格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6학년생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장래의 직업관·웃어른에 대하여 禮儀바른 행동·친구들간에 義理있는 사람·장차 부모를 모시는 일·餘暇善用과 용돈 사용·장래의 人間像 등에서 매우 의미있는 相關關係를 맺고 있다.

3. 학교와 사회의 環境 作用 變因의 檢證

〈假說 2의 檢證〉학교와 사회의 環境 作用 變因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은 有意味한 差異를 보일 것이다.

가. 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因에 따른 男女間 人性差

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因에 따른 性別差 相關關係는 다음 〈表 19〉의 분석과 같다.

〈表 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학년생들에 있어서 男女間的 性別差는 자기 학급에서 담임교사에게 바라는 教師像($P < .05$)과 가장 본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理由($P < .05$)에 대한 응답 내용 등에서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을 뿐, 나머지 變因

(言行에 영향을 주는 인물, 가장 좋아하는 인물,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理由, 가장 싫어하는 人物)에서는 意味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研究者의 相對的 假說은 部分的으로 棄却되었다.

〈表 19〉 학교와 사회의 심리적 작용 변인에 따른 性別差 相關關係

環境變因	Sex	N	X	SD	x ²	Significance
(17) 6학년생들이 바라는 教師像	남 여	367 342	1.953	1.211	11.8702	p<.05
(18) 言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人物	남 여	367 342	2.003	1.586	7.4855	--
(19) 가장 좋아하는 人物	남 여	367 342	3.633	1.195	5.2075	--
(20) (19)에 대한 理由	남 여	367 342	1.4291	1.130	7.3136	--
(21) 가장 싫어하는 人物	남 여	367 342	4.410	1.463	6.4674	--
(22) (21)에 대한 理由	남 여	367 342	2.622	1.777	13.2550	p<.05

나. 학교와 사회의 環境作用變因과 倫理·道德意識과의 관계 검증

(1)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과 倫理·道德意識과의 상관관계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과 倫理·道德意識間的 相關關係는 〈表 20〉의 分析과 같다.

〈表 20〉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과 倫理·道德意識과의 相關關係

環境作用變因 倫理道德意識	(17) 담임에 대 한 요구	(18) 言行에 영향 주는 인물	(19) 존경하는 인물	(20) (19)에 대 한 이유	(21) 싫어하는 인물	(22) (21)에 대 한 이유
(23) 장래의 職業觀	26.2504 --	36.9817 --	40.9228 --	44.1009 p<.05	74.7334 p<.001	111.289 p<.001

(24) 祖父母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생각	119.920 p<.001	47.9662 --	46.1559 --	22.7721 --	60.9146 p<.01	78.0722 p<.001
(30) 장차 부모님을 모시는 일	55.2671 p<.001	44.0818 p<.001	20.5575 --	34.1672 p<.001	44.8512 p<.001	22.9211 p<.05
(31) 餘暇善用 태도	114.967 p<.001	81.0868 p<.001	73.5182 p<.01	46.0069 p<.05	54.8877 p<.05	45.5431 --
(32) 용돈 사용	53.6386 p<.05	67.1692 p<.01	45.5629 --	47.7820 p<.05	46.4321 --	43.5404 --
(33) 장래의 人間像	117.296 p<.001	124.724 p<.001	40.9277 --	66.5526 p<.001	49.9392 p<.05	29.9579 --

※ 위의 수치들은 χ^2 (Chi-Square) 계수임.

〈表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과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間에는 다음과 같은 有意味한 相關關係가 나타났다.

환경 작용 변인 중 담임에 대한 要求 내용과 倫理·道德 意識間에는 장래의 職業觀과만 유의미한 관계가 없을 뿐, 조부모 모시기(p<.001)·부모 모시기(p<.001)·餘暇善用(p<.001)·용돈사용(p<.05)·장래의 人間像(p<.001)과는 유의미한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6학년생들의 言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人物과 倫理·道德 意識間에는 장래의 職業觀과 祖父母 모시기와만 有意味하지 않을 뿐, 부모 모시기(p<.001)·餘暇善用(p<.001)·용돈사용(p<.01)·장래의 人間像(p<.001)과는 상당한 意味 相關을 보이고 있다. 다만 尊敬하는 인물만 餘暇善用과 有意味한 相關關係를 나타낼 뿐, 나머지 倫理·道德 意識하고는 의미있는 相關關係가 없었다.

존경하는 인물을 존경하는 理由의 변인은 조부모 모시기를 除外하고는 장래의 職業觀(P<.05)·父母 모시기(p<.001)·餘暇善用(p<.05)·용돈사용(p<.05)·장래의 人間像(p<.001)과는 有意味한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또한 6학년생들이 싫어하는 인물과 倫理·道德 意識間에는 용돈사용 태도를 제외하고 장래의 職業觀(p<.001)·祖父母모시기(p<.01)·父母모시기(p<.001)·餘暇善用(p<.05)·장래의 人間像(p<.05)과는 유의미한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싫어하는 인물에 대한 理由의 변인은 장래의 職業觀(P<.001)·조부모 모시기(p<.001)·

부모 모시기($p < .05$)와 有意味한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위의 變因들간에 나타난 相關關係를 종합해 볼 때, 학교와 사회의 環境作用 變因들은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意識들 중, 장차 부모 모시기와 餘暇善用 태도, 그리고 장래의 人間像과 가장 有意味한 關係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과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와의 관계

다음의 <表 21>은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들이 6학년생들의 日常生活에서 어떤 生活態度를 보이게 하는가에 대하여 相關關係를 분석한 것이다.

<表 21>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과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와의 相關關係

環境作用變因 倫理道德意識	(17) 담임에 대 한 요구	(18) 言行에 영향 주는 인물	(19) 존경하는 인물	(20) (19)에 대한 이유	(21) 싫어하는 인물	(22) (21)에 대한 이유
(25) 웃어른에 대하여 예의바른 행동	35.1469 $p < .01$	35.9336 $p < .05$	27.9749 --	20.4257 --	22.4819 --	7.4543 --
(26) 친구들 간에 義 理있는 사람	24.6910 $p < .05$	13.6032 --	8.9995 --	12.0653 --	12.4852 --	18.0287 --
(27) 交通道德을 준수 하는 일	37.0160 $p < .01$	25.1882 --	12.0569 --	4.5878 --	10.6156 --	14.3505 --
(28) 公衆衛生을 청결 하게 하는 일	106.510 $p < .001$	81.6036 $p < .001$	31.0249 $p < .05$	70.9084 $p < .001$	37.1534 $p < .01$	19.6015 --
(29) 자기 주변을 整 理·整頓하는 일	8.4032 --	19.0177 --	26.0476 --	15.4907 --	26.8632 $p < .05$	15.6289 --

※ 위의 수치들은 x^2 (Chi-Square) 계수임.

위의 <表 21>에 나타난 내용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 중 담임에 대한 요구 변인은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와의 상관계에서, 자기 주변 정리정돈을 除外하고 웃어른에 대한 바른 행동($p < .01$)·친구들간의 義理있는 행동($p < .05$)·交通道德 遵守($p < .01$)·公衆衛生 청결($p < .001$)과 有意味한 關係를 나타냈다.

또한 言行에 영향을 주는 人物과의 관계에서는 웃어른에 대한 바른 행동($p < .05$) · 公衆衛生 청결($p < .001$)과 有意味했고, 존경하는 인물과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이유의 변인은 公衆衛生 청결($p < .05$, $p < .001$)과 有意味했으며, 싫어하는 인물은 公衆衛生 청결($p < .01$)과 자기 주변 정리정돈($p < .05$)과 有意味한 相關關係를 나타냈다. 그리고 싫어하는 인물에 대한 이유의 변인은 6학년생들의 倫理 · 道德 意識 어느 것보다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

4. 6學年生들의 倫理 · 道德 意識에 대한 分析

지금까지는 χ^2 (Chi-Square)檢證値를 통해서 여러 변인들간에 相互 有意味한 관계에 대해서 分析해 보았는데, 앞으로는 각각의 獨立된 변인에 대하여 初等學生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주는 社會的 要因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의 하위변인들의 分析 結果는 다음과 같다.

가. 家庭의 作用 變因

〈表 22〉 家庭中에서 家族들끼리의 對話 시간

	무응답	충분한 대화	식사시간 대화	할 이야기만	모이기도 힘들다	N
남	1	147	130	67	22	367
여	1	175	111	40	15	342
N	2	322	241	107	37	709
백분율	.3	45.4	34.0	15.1	5.2	100

가정에서 가족들끼리의 對話時間은 79.4%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對話時間은 보호자의 학력($p < .001$), 가정의 生活水準($p < .001$)과 매우 有意味한 상관關係를 보이고 있었다.

〈表 23〉 父母의 子女에 대한 關心 事項

	무응답	禮節바른 사람	학력 향상	건강한 사람	강조 내용 없음	그 외	N
남	1	134	150	66	6	10	367
여	2	144	110	62	12	12	342
N	3	278	260	128	18	22	709
백분율	.4	39.2	36.7	18.1	2.5	3.1	100

平素 부모가 큰 관심을 가지고 子女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예절바른 사람이 되는 것(39.2%)과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18.1%)으로 나타나, 부모의 關心事項의 순위는 德·智·體였다.

〈表 24〉 父母의 子女에 대한 將來 職業觀

	무응답	素質에 적합한 직업	부모 뒤를 잇는 직업	의사, 변호사 판·검사 등	인 기 직 업	돈버는 직 업	관심 없음	N
남	2	207	12	107	9	8	22	367
여	0	267	5	47	10	1	12	342
N	2	474	17	154	19	9	34	709
백분율	.3	66.9	2.4	21.7	2.7	1.3	4.8	100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將來 職業觀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소질, 적성, 취미(흥미)에 適合한 직업을 갖는 것(66.9%)으로 나타나, 부모들의 職業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感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아직도 醫師, 辯護士, 判·檢事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21.7%)을 希望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에 대한 높은 出世指向性 教育熱의 一面을 볼 수 있기도 하였다.

〈表 25〉 省墓의 경험과 先墓의 소재지를 아는지의 여부

	무응답	여러 번 다녀 왔	1-2번 다님	기억이 잘 안남	다녀본 적이 없음	그외	N
남	4	176	119	12	38	18	367
여	3	94	133	22	80	10	342
N	7	270	252	34	118	28	709
백분율	1.0	38.1	35.5	4.8	16.6	3.9	100

부모와 함께 조상의 묘에 省墓를 여러 번 다녀 先墓의 위치를 아는 6학년생들은 38.1%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 나머지는 1-2번 정도 다니거나 아예 다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美風良俗인 敬老孝親 思想이 점차 稀釋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를 자아냈다.

〈表 26〉 省墓의 경험과 先墓의 소재지를 모르는 理由

	무응답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공부를 잘 하라고 해서	조상의 묘가 너무 멀어서	그외	N
남	229	17	64	1	33	23	367
여	168	17	83	3	46	25	342
N	397	34	147	4	79	48	709
백분율	56.0	4.8	20.7	0.6	11.1	6.8	100

省墓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先墓의 위치를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가 특별한 이유없이 데려가지 않아서가 20.7%로 가장 많았고, 조상의 묘가 너무 멀거나 다른 지방에 있어서가 11.1%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敬老孝親 교육을 強化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表 27〉

부모에게 바라는 사항

	무응답	관심과 대화	공부에 보탬	식구와 함께 나들이	용돈	불간섭	그외	N
남	2	181	42	90	33	15	4	367
여	3	203	34	65	14	18	5	342
N	5	384	76	155	47	33	9	709
백분율	0.5	54.2	10.7	21.9	6.6	4.7	1.3	100

6학년생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關心과 對話가 54.2%로 단연 首位였고, 그 다음은 식구와 함께 나들이(21.9%), 어려운 숙제 등 공부를 하는데 보탬이 되어 주셨으면 좋음(10.7%)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용돈만 많이 주면 좋겠다는 것과 부모의 干涉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11.3%나 되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 문제의 큰 原因으로 작용할 可能性을 豫見할 수 있었다.

〈表 28〉

부모에 대한 自矜心

	무응답	자랑스럽게 여김	그저 그렇게 여김	부끄럽게 여김	그 외	N
남	3	262	71	18	13	367
여	0	268	48	14	11	342
N	3	530	119	32	24	709
백분율	0.4	74.8	16.8	4.5	3.4	100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答辯으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가 74.8%나 되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 부모니까 그저 그렇게 생각한다고 16.8%,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가 4.5%, 그 外와 無應答도 3.8%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表 29〉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理由

	무응답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학식이 높으셔서	지위가 높으셔서	부자이셔서	멋쟁이이셔서	그 외	N
남	105	165	73	11	5	2	0	6	367
여	73	184	64	1	2	3	1	14	342
N	178	349	137	12	7	5	1	20	709
백분율	25.1	49.3	19.3	1.7	1.0	0.7	0.1	2.8	100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마음이 넓고 너그러우심(49.3%)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모(19.3%)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자녀들은 寬容과 仔細하신 부모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學識이 높고 地位가 높다든지 또는 富者라든지, 멋쟁이처럼 잘 생기셨다는 理由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생들은 3.5%에 불과해 6학년생이지만 보는 눈(judge of character)이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無應答(25.1%)과 그 외(2.8%)의 학생이 무려 27.9%를 차지하여 부모에 대해 썩 내키지 않는 점도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이는 p. 43의 〈表 11〉에서 이미 나타난 것과 같이 학교 소재지($p < .05$)와 부모의 학력($p < .01$), 그리고 가정의 생활수준($p < .001$)과 有意味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表 30〉 부모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理由

	무응답	관심이 없으셔서	술주정과 폭력 때문	무식하셔서	가난하셔서	못생기셔서	그 외	N
남	345	12	2	1	6	1	0	367
여	327	5	2	1	6	1	0	342
N	672	17	4	2	12	2	0	709
백분율	94.8	2.4	0.6	0.3	1.7	0.3	0	100

한편,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고작 무관심(2.4%)과 가난(1.7%) 때문일 뿐, 부모에 대해 부끄러워 하는 이유에 대한 應答에 대해서는 뚜렷한 理由가 없어 별로 意味가 없는 것으로 解釋되었다. 껍 多幸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것은 부모님의 술주정과 폭력이 0.6%로 별로 높게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나. 學校와 社會의 環境 作用 變因

〈表 31〉 담임 교사에 대한 주문 사항

	무응답	착한 마음과 행동을 강조	공평하게 대해 줌	학력 향상을 강요함	엄격하게 대해 줌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 줌	그 외	N
남	2	160	121	35	16	28	5	367
여	2	147	136	31	3	18	5	342
N	4	307	257	66	19	46	10	709
백분율	0.6	43.3	36.2	9.3	2.7	6.5	1.4	100

현재 학급에서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담임 교사에게 바라는 요구 사항은 공부보다도 착한 마음과 행동을 갖도록 하는데 애를 써 주시는 분(43.3%), 모든 학생을 差別하지 않고 公平하게 대해 주시는 분(36.2%)인 반면, 학력 향상(9.3%)과 엄격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2.7%)은 미미한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人性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德育이 強化되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하겠다.

〈表 32〉 자기의言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분

	무응답	부모님	형제자매	선생님	친 구	이웃의 형이나 언니	연예인	그외	N
남	4	223	53	9	46	10	21	1	367
여	1	208	51	2	47	6	26	1	342
N	5	431	104	11	93	16	47	2	709
백분율	0.7	60.8	14.7	1.6	13.1	2.3	6.6	0.3	100

자기의 성격이나 옷차림, 언어 및 행동 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분으로는, 父母라고 응답한 6학년생이 60.8%로 나타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父母가 絶對的인 教育者임이 밝혀졌고, 한 집에 살고 있는 兄弟姉妹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도 14.7%나 되어 家庭의 雰圍氣(homely atmosphere)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친구와 演藝人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학생도 각각 13.1%와 6.6%나 되어 좋은 친구 사귀기 指導와 단정한 옷차림·맑은 마음의 指導가 병행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기도 하였다.

〈表 33〉 우리들 주위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분

	무응답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선생님	그외	N
남	3	17	34	84	177	24	26	2	367
여	2	20	36	58	181	20	24	1	342
N	5	37	70	142	358	44	50	3	709
백분율	0.7	5.2	9.9	20.0	50.5	6.2	7.1	0.4	100

우리 주위에 계신 어른들 가운데 가장 尊敬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들라는 물음에는 많은 학생이 어머니(50.5%)라고 응답해 어머니의 존재가 6학년생들에게 대단한 影響力을 미치고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었다. 그 다음이 아버지(20%)였으며, 祖父母(15.1%)와 형제자매(6.2%)도 학생들에게 중요한 案內役이 되어야 함을 強調시키고 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尊敬心(7.1%)은 낮아 ‘君師父 一體’라는 말이 옛말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여겨져 教職者에게 警鐘을 울려 주고 있었다.

〈表 34〉 그 분을 가장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이유

	무응답	내 의견 존중	격려와 용기	간섭을 안함	어려운일 대신처리	풍족한 용돈	그외	N
남	4	306	15	10	12	20	0	367
여	2	288	5	13	8	26	0	342
N	6	594	20	23	20	46	0	709
백분율	0.8	83.8	2.8	3.2	2.8	6.5	0	100

〈表 33〉과 관련하여 그 분을 가장 尊敬하거나 좋아하는 理由는, 항상 자기 자신을 理解해 주고 意見을 尊重해 주어서가 83.8%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는 理解와 寬容의 정신(the spirit of tolerance)이 매우 중요함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용돈을 많이 주어 사고 싶은 것을 豊足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어서 존경한다는 학생도 6.5%나 되었고, 不干涉과 어려운 일 대신 처리가 6%나 되어 이들 12.5%의 6학년생들에 대하여는 올바른 人性指導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表 3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본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사람

	무응답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선생님	이웃의 불량한 선배	그 외	N
남	10	23	19	39	9	231	36	367
여	8	17	13	30	12	211	51	342
N	18	40	32	69	21	442	87	709
백분율	2.5	5.6	4.5	9.7	3.0	62.3	12.3	100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본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사람은 이웃에 사는 先輩(불량한 중·고등학생)들로 62.3%를 차지해, 현대 사회의 청소년 문제와 학교 폭력의 위험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형제자매도 69명(9.7%)이나 되고 있고, 부모와 교사도 각각 10.1%와 3%로 나타났으며, 막연한 응답도 14.4%나 되고 있어, 주위의 6학년생들에게 좀더 親近感을 가지고 돌봐 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表 36〉 그 분을 가장 본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이유

	무응답	의견무시와 강제력	욕부터 함	물건을 훔치게 함	자존심을 상하게 함	무관심과 차별대우	그 외	N
남	22	115	85	67	5	47	26	367
여	19	87	75	54	2	75	30	342
N	41	202	160	121	7	122	56	709
백분율	5.8	28.5	22.6	17.1	1.0	17.2	7.9	100

〈表 35〉와 관련하여 가장 본받고 싶지 않거나 싫어하는 理由에 대해서는, 意見 無視와 物理力 行使 때문이 51.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p. 61의 〈表 34〉 尊敬하는 理由와 正反對의 現象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를 物理力으로 위협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게 한다거나 無關心과 差別 待遇 때문이 또한 34.3%로 높게 나타나 感受性이 예민하고 敵愾心이 쉽게 일어나는 6학년생들에게는 자 상한 보살핌과 人格的인 待遇가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要因임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

다.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

〈表 37〉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기초로 할 때의 장래 직업

	무응답	전문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1차 산업	2차 산업	비숙련 기능직	그 외	N
남	6	203	33	7	6	6	106	367
여	1	242	33	3	1	1	61	342
N	7	445	66	10	7	7	167	709
백분율	1.0	62.8	9.3	1.4	1.0	1.0	23.6	100

자기의 素質과 趣味, 適性, 그리고 지금까지의 학교 성적과 평소 자기 생각을 기초로 했을 때, 장차 어떤 직업(일)을 갖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 사무직 (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공무원, 회사원 등)에 從事하는 것이 6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販賣 서비스職(9.3%)의 選好度가 높았다. 이는 p. 56 〈表 24〉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將來 職業觀에 대한 應答率과 아주 近接한 數值 (素質에 따라서 66.9%, 醫師나 判·檢事 21.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한 학생들의 大部分이 事務職을 택하고 있고, 응답하지 않은 이들도 23.6%나 되어 올바른 進路指導의 必要性이 제기되고 있었다.

〈表 38〉 祖父母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생각

	무응답	효도와 가정의 질서가 섬	전통문화와 역 사 바로 알기	세대차 때문에 따로 살기	양로원과 같은 곳에서 살기	그 외	N
남	1	231	76	26	13	20	367
여	3	185	93	31	15	15	342
N	4	416	169	57	28	35	709
백분율	0.6	58.7	23.8	8.0	3.9	4.9	100

祖父母를 모시고 식구들 모두 한 집에 사는 것에 대한 생각에는, 孝道와 가정의 질서가 바로선다는 것(58.7%)과, 우리의 傳統文化와 歷史를 바로 배운다는 것(23.8%)으로 양 쪽을 합하여 82.5%로 나타났다. 이는 初等學校 6학년생들이 保守的인 傾向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世代差가 크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따로 사시는 것이 좋다(8%)거나 養老院 같은 곳에서 그 분들 또래끼리 사시는 것이 좋다(3.9%)는 학생들도 都合 85명이나 되고 있어 人性教育 次元에서의 敬老思想 教育이 실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졌다.

〈表 39〉 장차 부모님을 모셔서 사는 일

	무응답	당연히 모시고 살겠다	서로의 편의를 위해 따로 사는 것이 좋다	무조건 따로 살겠다	N
남	0	334	23	10	367
여	0	277	40	25	342
N	0	611	63	35	709
백분율	0	86.2	8.9	4.9	100

장차 어른이 되면 부모님을 모셔서 살겠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86.2%(남 91%, 여 81%)가 당연히 모시고 살겠다고 대답해 바람직한 思考를 지니고 있었다. 男學生이 女學生에 비해 10%가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便宜를 위해 따로 사는 것이 좋다든지 무조건 따로 살겠다고 한 학생(98명) 중 남학생의

비율이 33.7%로 여학생(66.3%)에 비해 훨씬 낮아 남학생들이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責任意識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傳統的인 家父長的인 제도가 뿌리깊게 남아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表 40〉 放課 後나 일요일 등 자기의 餘暇時間 보내는 일

	무응답	부모님의 일손돕기	취미활동	TV, 비디오 보기	전자오락	친구들과 어울림	그 외	N
남	6	27	57	100	55	68	54	367
여	4	104	55	80	4	42	53	342
N	10	131	112	180	59	110	107	709
백분율	1.4	18.5	15.8	25.4	8.3	15.5	15.1	100

放課後나 일요일(공휴일)에 자기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물음에는 아주 多樣하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일손을 돕는 일(131명 중 여학생이 79.4%인 104명)에는 여학생들이 매우 誠實하게 참여하고 있다. 설거지·청소·빨래 등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거나(18.5%), 독서·趣味 活動 등의 시간을 갖는 학생(15.8%)은 전체의 34.3%에 불과한 반면, TV를 본다든지(25.4%) 電子娛樂을 하는 행위(8.3%),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학생(15.5%)들이 49.2%나 되고 있다. 이는 p. 45의 〈表 13〉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父母맞벌이($p < .05$)와 有意味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 맞벌이 父母를 둔 학생들의 餘暇善用 지도가 急先務로 浮上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表 41〉 용돈을 쓰는 일

	무응답	불우한 친구 돕기	공부에 필요한 물건 구입	취미와 오락물 구입	완구품 구입	군것질	그외	N
남	6	6	122	74	14	91	54	367
여	5	4	163	19	11	86	54	342
N	11	10	285	93	25	177	108	709
백분율	1.6	1.4	40.2	13.1	3.5	25.0	15.2	100

용돈은 주로 공부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40.2%)에 쓴다는 학생들이 제일 많았다. 그러나 불우한 친구를 돕는다는 학생이 1.4%인 반면, 군것질(25%)과 娛樂物件 구입(13.1%), 그외(15.2%) 등에 용돈을 쓴다는 학생이 53.3%나 되고 있고, p. 45의 <表 13>에서 보는 것처럼 용돈 사용은 학교 所在地, 보호자 職業, 보호자 學力, 生活 水準과 매우 相關關係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42> 將來의 人生觀

	무응답	능력껏 평범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연구하는 전문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외	N
남	1	261	12	13	73	7	367
여	1	272	9	3	48	9	342
N	2	533	21	16	121	16	709
백분율	0.3	75.2	3.0	2.3	17.1	2.3	100

장차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將來의 人生觀에 關해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자기 능력껏 올바르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응답한 6학년생이 75.2%에 이르러 아주 바람직했고, 그렇게 대답한 학생 중 여학생(전체 여학생 중 79.5%, 응답자 중 51.03%)이 많은 비율을 차지해 男學生에 비해 素朴한 一面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남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 지위에서 앞서는 사람이 되겠다는 학생들도 17.1%나 되었다. 이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 중 학교 소재지($p<.001$), 보호자 직업($p<.001$), 보호자 학력($p<.001$), 父母맞벌이($p<.05$)와 높은 相關關係를 나타냈다.

라.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

<表 43> 日常生活에서의 禮節生活

	무응답	그렇다	중간이다	그렇지 않다	N
남	2	95	261	8	367

여	0	93	238	11	342
N	2	189	499	19	709
백분율	0.3	26.7	70.4	2.7	100

日常生活에서 항상 웃어른께 禮儀바르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는, 「중간이다」(70.4%)라고 대답한 학생이 大部分으로 남학생이 71.1%, 여학생이 69.6%를 차지했다. 한편,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은 전체적으로 26.9%(男 25.9%, 女 27.2%)에 불과하였으며, 여학생의 비율이 1.3% 높았다.

〈表 44〉 친구들간에 義理있는 사람

	무응답	그렇다	중간이다	그렇지 않다	N
남	0	70	260	37	367
여	0	51	256	35	342
N	0	121	516	72	709
백분율	0	17.1	72.8	10.2	100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지 않아 친구들간에 義理있는 사람으로 통하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중간이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7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17.1%) 중 남학생(전체 남학생 중 19.1%)이 여학생(전체 여학생 중 14.9%)에 비해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5〉 交通道德 遵守

	무응답	그렇다	중간이다	그렇지 않다	N
남	1	70	251	45	367
여	1	77	238	26	342
N	2	147	489	71	709
백분율	0.3	20.7	69.0	10.0	100

누가 모든 보지 않은 交通道德을 얼마나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20.7%만이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고, 여학생(22.5%)이 남학생(19.1%)에 비해 교통도덕을 誠實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6〉 公衆道德 지키기

	무응답	그렇다	중간이다	그렇지 않다	N
남	2	50	239	76	367
여	0	52	238	52	342
N	2	102	477	128	709
백분율	0.3	14.4	67.3	18.1	100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길가에 가래침 뱉지 않기 등의 공중도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대한 물음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준수하는 학생이 14.4%에 머물렀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勤勉性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여학생이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에 응답한 여학생(15.2%)이 남학생(13.6%)보다 1.6%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이다」라고 응답한 이들도 여학생(69.6%)이 남학생(65.1%)에 비해 4.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研究者가 이론적 배경(p. 32 參照)에서 밝힌 것과 같이, 여학생의 道德性은 성장함에 따라서 고도로 內面化되고 人本主義的인 경향으로 흘러 道德的 違反에 대해서 남학생에 비해 현저한 罪責感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表 47〉 周邊 整理整頓

	무응답	그렇다	중간이다	그렇지 않다	N
남	1	73	220	73	367
여	0	118	193	31	342
N	1	191	413	104	709
백분율	0.1	26.9	58.3	14.7	100

자기 주변을 깨끗이 整理整頓하는 사항에서는 男女間에 훨씬 차가 두드러졌다.
‘주변 정리정돈을 잘 하느냐’에 대해서 「그렇다」로 응답한 학생(191명, 26.9%)
중 여학생이 34.5%로 남학생(19.9%)에 비해 무려 14.6%가 깔끔한 편으로 나
타났다. 한편,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학생(104명, 14.7%) 중에서는 正反對
로 남학생(19.9%)이 여학생(9.1%)에 비해 10.8%나 많았다. 따라서 p. 48의
〈表 16〉에서 나타나듯이, 日常生活에서의 생활태도에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생
남녀간에는 有意味한 性別差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V. 要約 및 結論

1. 要約

本 研究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과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 그리고 학교와 사회의 심리적 작용 변인 등 社會的 要因(social factors)들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人性 形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하고, 그들간의 相關關係를 비교·분석하여 糾明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指向해야 할 意識과 行動에 대해서 論議해 보았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假說을 설정했고, 이러한 가설의 檢證을 통하여, 倫理·道德意識이 강하게 刻印되는 시기이면서도 行動修正이 容易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人性形成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社會的 要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했다. 本 研究의 假說은 다음과 같다.

〈假說 가〉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性別, 학교 소재지,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學力, 職業, 生活程度, 家族構造(核家族化), 父母 맞벌이 如何에 따라 그들이 지닌 人性이 有意味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假說 나〉 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意識은 有意味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假說 다〉 학교와 사회의 環境 作用 變因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은 有意味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위의 3가지의 假說의 檢證을 통해서, i)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의 有意의미 여부, ii)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의 有意의미 여부, iii)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의 有意의미 여부, 그리고 iv)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 등을 분석해 보았다.

가. 家庭의 物理的 環境 變因에 따른 6학년생들의 人性差

(1)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 중, 生活水準에 따라 남녀간에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으나, 학교 소재지, 보호자 직업, 학력, 核家族化, 부모 맞벌이에 따른 남

녀간에는 意味있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남녀간에 人性差가 있을 것이라는 相對的 假說은 部分的으로 棄却되었다.

(2) 가정·학교·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 그들이 지니는 倫理·道德 意識에 대한 가정의 物理的 環境 變因間에는 意味있는 차이가 있었다.

(3)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과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과의 相關關係에서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 下位 變因으로 보호자 직업, 보호자 학력, 生活水準 등 3가지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작용했고,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으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職業觀, 자녀의 부모에 대한 自矜心 등 2가지 변인이 가장 有意味하게 작용했다.

(4)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과 학교와 사회의 심리적 작용 변인과의 相關度에서는, 6학년생들이 자기 학급 담임교사에게 바라는 注文 事項이 가정의 물리적 환경 하위 변인 어느 것보다도 有意味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단지 그들의 言行과 마음의 感化에 영향을 주는 인물들과는 有意味 程度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5)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과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에서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 하위 변인으로 학교 소재지와 보호자 직업 등 2가지 변인이 가장 有意味하게 작용하고 있고, 倫理·道德 意識의 하위 변인으로는 장래의 직업관, 친구들간에 義理있는 사람, 용돈 사용, 장래의 人間像 등이 有意味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의 檢證

(1)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에 따른 男女間 人性의 差異에서는,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에 따른 性別差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心理作用 하위 변인 중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注文 事項, 자녀의 부모에 대한 自矜心과 羞恥心 與否를 제외하고는 남녀간에 의미있는 差異를 보이고 있다.

(2)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과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에서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有意味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이 있는가 하면 남·녀가 의미있는 차이없이 共通 意識(common consciousness)을 지니고 있었다.

(3) 일상생활의 生活態度에 있어서의 人性差에서는, 전체적으로 남녀간에 有

意味한 差異(F值 8.0538, $P < .01$)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公衆衛生 청결과 자기 주변 整理整頓의 두 변인에서 여학생이 뚜렷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4)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과 6학년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生活態度와의 相關關係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生活態度 중 웃어른에 대한 禮儀바른 행동과 친구들간에 義理있는 사람 등 두 변인이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과 가장 有意味한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과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에서, 학생의 부모에 대한 注文事項(관심과 대화 등) 변인은 학생이 지니고 있는 心情이 종합적으로 集約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 自矜心을 가지고 있는 6학년생들의 共通的인 現象은, 장래의 職業觀, 웃어른에 대하여 예의바른 행동, 친구들간에 義理있는 사람, 장차 부모를 모시는 일, 餘暇善用과 용돈 사용, 장래의 人間像 등에서 매우 意味있는 相關關係를 맺고 있었다.

다. 學校와 社會의 環境 作用 變因의 檢證

(1) 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인에 따른 男女間 人性差에서는, 6학년생들 남녀간에는 자기 학급에서 담임교사에게 바라는 教師像과 가장 본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理由의 變因에서 有意味한 차이를 보였을 뿐, 그 이외의 변인에서는 有意味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本 研究者의 상대적 假說은 부분적으로 棄却되었다.

(2) 학교와 사회의 심리적 작용 변인과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에서는, 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인들은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들 중, 장차 부모 모시기와 餘暇善用 태도, 그리고 장래의 人間像과 가장 有意味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3) 學校와 社會의 心理的 作用 變인과 일상생활에서의 生活態度와의 相關關係를 살펴 보면, 일상생활의 生活態度에 가장 영향력이 큰 심리적 작용 변인으로 는 담임에 대한 注文事項과의 관계였고, 逆으로 일상생활의 生活態度가 學校와 社會의 環境 變인과 有意味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작용을 하게 하는 下位 變因으로 는 公衆衛生 청결이었다.

라.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에 대한 分析 要約

제주도내 13개 초등학교 709명의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倫理·道德 意

識에 관한 質問紙 調査 結果를, i) 가정의 心理的 作用 變因, ii) 학교와 사회의 環境 作用 變因, iii) 6學年生들의 倫理·道德 意識, iv)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 등의 領域으로 나누어 요약했다.

(1) 家庭의 心理的 作用 變因

(가) 가정에서의 가족끼리의 對話時間은 79.4%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고 있었고, 보호자의 학력과 생활수준에 비례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 평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관심 사항은 禮節바른 사람(39.2%)과 학업 성적 향상(3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 부모의 장래 職業觀은 자녀들의 소질과 적성을 알맞는 직업을 갖는 것(66.9%)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라) 先墓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 6학년생들은 38.1%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 소재지를 모르는 理由도 本人이나 부모들이 특별한 이유나 성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데려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마)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가장 큰 關心事는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눠 주는 일(54.2%)로 나타났다.

(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74.8%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그 理由로서는 68.6%의 학생이 부모님께서 마음이 넓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사) 반면에,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32명, 4.5%)들의 이유로서는 무응답이 94.8%, 관심이 없거나 가난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1%에 불과해 별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없었다.

(2) 學校와 社會의 環境 作用 變因

(가) 현재 학급에서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담임교사에게 바라는 注文 事項은 자기들이 德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43.3%)과 모든 학생들을 公平하게 대해 주는 것(36.2%)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자기의 言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인물은 부모님(60.8%)과 兄弟姊妹(14.7%)였으며, 선생님은 1.6%, 演藝人은 6.6%에 불과했다.

(다) 6학년생들은 자기들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분으로 어머니(50.5%)와 아버지(20.2%), 祖父母(15.1%) 順으로 꼽았으며, 그 이유로는 大部分(83.8%)의 학생이 寬容과 의견 존중이라고 하고 있다.

(라)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본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사람은 이웃의 不良한 先輩(중·고등학생)들이었으며(62.3%), 그 이유로는 68.2%가 의견 무시·強制力·상스러운 말씨·물건을 훔치게 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3) 6學年生들의 內面的 態度(倫理·道德 意識)

(가) 자기의 장래 職業觀에 대해서는, 62.8%의 6학년생들이 專門 事務職을 갖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販賣 서비스職(9.3%)이었으며, 응답하지 않은 이들도 23.6%나 되었다.

(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모든 식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82.5%의 학생이 찬성했으며, 장차 어른이 된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86.2%가 당연히 모시고 살겠다고 하고 있었다. 특히 장차 부모 모시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자 중 남학생(91.0%)이 여학생(81.0%)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 放課後나 일요일(공휴일)에 자기의 餘暇時間 활용에 대해서는 아주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모님의 일손 돕기와 趣味活動이 34.3%에 불과한 반면, TV·電子娛樂·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등이 49.2%나 되고 있고, 이는 부모 맞벌이($p < .05$)와 有意味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라) 용돈 사용에 있어서는 41.6%의 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文具나 불우한 친구를 돕는 등 건전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군것질과 오락 물건 구입, 그 외에 용돈을 쓴다는 학생도 53.3%나 되고 있었다.

(마) 將來의 인생觀에 관해서는 75.2%의 학생이 능력껏 平凡하게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응답했고, 여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해 남학생에 비해 소박한 일면을 보여 주고 있었다.

(4) 日常生活에서의 生活態度

(가) 일상생활에서의 禮節의 생활화는 70.4%의 학생이 중간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남학생(71.1%)과 여학생(69.6%)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나) 친구들간에 義理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7.1%에 불과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4.2% 정도 높게 나타났다.

(다) 교통도덕 遵守에 있어서는 20.7%만이 누가 보든 안보든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고,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비교적 誠實하게 遵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길가에 가래침 뱉지 않기 등의 公衆道德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는 학생도 14.4%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부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

(마) 자기 주변을 깨끗이 整理整頓하는 사하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6.9%에 불과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14.6%가 깔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結 論

本 研究의 이론적 배경과 질문지 조사 분석 결과를 土臺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인성형성에 영향을 주는 社會的 要因들에 대해서, 가정·학교·사회적 환경 작용 변인들간의 相關關係와 그들의 윤리·도덕 의식 등으로 大別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가정·학교·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본다.

첫째, 제주도 初等學校 6학년생들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인 학교 소재지, 보호자 직업, 보호자 학력, 가정의 생활수준, 核家族化, 부모 맞벌이의 영향에 따라 人性差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 가〉,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과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간의 相關關係와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과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意識 변인간에도 有意味한 人性差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 나〉, 학교·사회의 심리적 작용 변인과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意識 변인간의 相關關係에서도 마찬가지로 有意味한 人性差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 다〉의 相對的 假說은 각 領域의 下位變因들의 類型과 性格에 따라 有意味한 相關關係가 部分的으로 採擇되기도 하고 棄却되기도 하였다.

둘째,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에 따라 남녀간 性別差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에서는 男女間에 부분적으로 有意味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性別差 없이 共通 意識(common consciousness)을 지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상생활의 生活態度에도 그대로 연계되어 有意味한 性別差를 보였는데, 웃어른에 대한 禮節, 交通道德 준수, 公衆衛生 청결, 자기 주변 整理整頓 변인 등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훨씬 良好했으며, 단지 친구들간의 義理 변인에서만 남학생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심리적 작용 변인과 倫理·道德 意識과의 相關關係에서는, 부모에 대해 自矜心을 가지고 있는 6학년생들이 장래의 職業觀, 웃어른에 대하여 예의 바른 행동, 친구들간에 義理있는 사람, 장차 부모를 모시는 일, 餘暇善用과 용돈 사용, 장래의 人間像 등에서 매우 意味있는 相關關係를 맺고 있었고, 학교와 사회의 環境 作用 變因에 따른 人性差에서는 각 변인의 類型과 性格에 따라 有意味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담임교사에게 바라는 教師像 변인에서 有意味한 性別差를 보였다. 또한, 倫理·道德 意識의 변인인 敬老孝親 사상과 餘暇善用 태도, 장래의 人間像은 학교와 사회의 환경 작용 변인에 따라 有意味한 人性差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性別差는 Martin Hoffman이 지적한 대로 부모(특히 어머니)의 아들과 딸에 대한 양육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딸에 대해서 더 많은 誘導(induction) 방법을 사용하며, 민주적인 방식과 愛情(affection) 표현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소년들에 비해 소녀들이 더 內面的이고 人本主義的인 道德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倫理·道德 意識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본다.

첫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關心事는 德·智·體 順으로 나타나 學父兄들이 자녀의 人性教育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認知되었고, 부모가 바라는 자녀들의 장래 職業觀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소질과 적성을 尊重해 결정한다는 바람직한 방향이었으나, 先墓의 소재지를 모르는 학생이 예상외로 많아 敬老孝親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졌다.

둘째,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가장 큰 注文事項은 관심과 대화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理由로 寬容과 關心을 첫째로 꼽

고 있어, 올바른 人性指導의 가장 중요한 要件이 理解와 關心 그리고 對話라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었다. 담임교사에게 바라는 注文 事項은 德行과 公平無私였고, 6학년생들의 言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인물로는 부모와 兄弟姉妹로 나타났고, 豫想外로 선생님과 演藝人은 微微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役割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켜 주고 있었다.

셋째, 6학년생들이 가장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분은 어머니로 그 이유를 寬容과 의견 존중으로 들었고, 가장 본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사람으로는 이웃의 不良한 先輩(중·고등학생)들로 그 이유를 의견 무시·強制力·상스러운 말씨·竊盜 順으로 꼽아, 6학년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어머니였으며 學校 暴力의 위험水位도 잘 말해 주고 있었다.

넷째, 장래의 職業으로는 專門 事務職과 販賣 서비스職 順이었으나, 응답하지 않은 학생도 상당수 있어 進路指導의 必要性을 느끼게 했고, 祖父母 모시기, 장차 부모 모시기는 大部分의 6학년생들이 당연히 모시고 살겠다고 응답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男兒選好 思想과 家父長的 傳統 思想이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게 했다.

다섯째, 餘暇時間은 부모님의 일손 돕기와 趣味活動 보다 無意味하게 소비하고 있었고, 맞벌이 父母를 둔 학생들에게 문제가 더 많음이 드러났으며, 용돈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文具나 불우이웃 돕기 등 건전한 사용 보다 군것질과 娛樂 物件 구입 등에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勤儉하는 태도 육성이 절실함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將來의 인생관에 관해서는 大部分의 학생이 능력껏 平凡하게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응답했는데,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에 비해 소박한 일면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러한 性別差 역시 Martin Hoffman이 지적한 대로,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남자에게는 작용하는 성취와 성공에 대한 압력의 強度와 差別化된 性役割 사회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以上과 같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諸要因을 각 변인들간의 相關關係(crosstabulations)로 나타난 結論을 綜合해 보면,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부모의 過剩保護 내지 對話의 결핍으로 나약하며, 利己의이고 自己中心主義的인 것이라는 通俗的인 理解(popular understanding)와는 달

리, 적어도 6學年初까지는 그들의 人性이 온건하고 肯定的이며 既成世代들의 倫理·道德觀에 상당히 접근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6학년생들에 대한 既成世代(the older generation)들의 對話와 寬容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相互 關心,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役割이 그들의 人性形成(personality-forming)에 매우 중요한 變因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은 意志가 확립되지 못해 습관에 약하고 한 두 번 離脫로 痼疾化(deep-seated bad habit)되기 쉬운 弱點을 지니고 있는 6학년생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보살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人性形成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환경 변인은 가정이며, 청소년들의 人性形成에 가장 惡影響을 주는 요소인 劣等意識, 疎外感, 憎惡心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人性教育은 출발해야 하리라 굳게 믿는다.

본 연구의 分析 結果를 고찰해 볼 때, 앞으로의 研究 課題는,

첫째, 標集對象을 각 地域의 特性을 살린 광범위한 對象(島嶼·僻地 6학년생 포함하여 1,000명 정도 多樣하게)을 중심으로 性差와 發達段階에 따른 質問紙 調査時期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相關關係 고찰이 要望되고,

둘째, 가정·학교·사회 物理的·심리적 환경 작용 변인들끼리의 相關關係가 좀 더 객관성·타당성·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학년생은 물론 그 학부형에게까지 질문지 및 相談調査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셋째,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核家族의 教育적 기능과 大家族의 教育적 기능의 相互 비교 등 청소년들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주는 關心事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검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韓國文獻

〈單行本〉

- 강재륜(1991), 「現代社會와 倫理教育」, 大旺社.
- 京畿道社會科教育研究會(1996), 「人性教育 指導資料」.
- 韓國國民倫理學會編(1994), 「國民倫理學概論」, 螢雪出版社.
- 권오봉(1994), “올바른 人格形成을 위한 禮節 教育”, 「人格教育을 위한 學校・家庭의 協力, 教育月報 通卷 제 149호」, 교육부.
- 權彗鍾(1995), “現代 靑少年的 意識과 行動”, 「現代 靑少年的 意識과 行動, 教育月報 通卷 제 160호」, 教育部.
- (1992)譯, “靑少年的 理解 : 變化하는 世界 속의 靑少年” - J. J. Conger의 Adolescence and Youth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體育靑少年部.
- (1988), 「靑少年 指導의 實際」, (教育新書 127), 培英社.
- 김신일(1996), 「教育社會學」, 教育科學社.
- 金億煥・朴贊石・李鍾汶・河仁鎬 共著(1992), 「未來社會와 教育」, 韓國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
- 김윤환(1997), “人性教育의 理解”, 「아이들이 달라져요, 새교실 人性教育 資料集 VOL/42 NO.1」,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 金丁煥(1984), 「教育의 本質과 課題」, 博英社.
- 金宗西, 崔貞淑(1992), 「教育研究法」,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 金泰吉(1994), 「倫理學」, 博英社.
- 金海東(1982), 「調查方法論 : 理論과 技法」, 法文社.
- 南宮達華(1996), 「道德 教育論」, 哲學과現實社.
- (1993), “道德科 授業模型의 理論과 實際” 「教育學 研究, 제17집」, 韓國教育學會.
- 남정걸(1995), “현대 청소년의 생활 세계”, 「現代靑少年的 意識과 行動, 教育月報 통권 제160호」, 教育部.
- 니일 포스트맨 外(1971), 「21世紀를 위한 學校와 敎師」・教育新書 151, 송용의, 이현남, 조연순 共譯(1987), 培英社.

- 문창하(1996), “青少年 善導를 위한 課題”, 「教育濟州」, 통권 92호.
- 朴德圭(1987), 「青少年的 性格形成과 攻擊性-公格性的 診斷과 그 處方」·教育新書 121, 培英社.
- 박병기·추병완(1996), 「倫理學과 道德教育」, 인간사랑.
- 朴雅晴(1987), 「青年과 아이덴티티」·教育新書 154, 培英社.
- 朴容憲·崔貞淑(1989), 「教育社會學」,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 빌 E. 포리샤·바바라 E. 포리샤(1976), 「道德性 發達과 教育(Moral Development and Education)」, 서규선·최문기 譯(1990), 종로서적.
- C.H. 패터슨(1971), 「人間主義 教育(Humanistic Education)」, 장상호 譯(1983), 博英社.
- 安昶範(1996), 「잃어버린 배달사상과 東洋思想의 起源」, 國學資料院.
- 李光永(1993), “教育非理와 그 對策: 歪曲된 教育意識의 問題”,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1, No. 2.
- 李攷泰(1987), 「倫理와 倫理教育」·教育新書 35, 培英社.
- 李淳珩(1989), 「教育的 社會論」, 良書院.
- 이정호·정재정·한균자·김교빈 共著(1993), 「國民倫理」, 韓國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
- 李鍾昇(1989), 「教育研究法」, 培英社.
- 李 中(1976), 「教育和 社會」, 培英社.
- 李勳求·吳慶子(1994), 「道德的 行動의 強化」, 峨山財團 研究叢書 第16輯, 김문당.
- 이혜성(1980), “學校와 家庭教育”, 「새교실」 통권 제289호, 大韓教聯.
- 정원식·이상로·이성진 共著(1980), 「現代教育 心理學」, 教育出版社.
- 車京守·宋大永·李美娜 共著(1992), 「現代社會의 諸問題」, 韓國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
- 최호성(1996), “學校單位 人性教育 프로그램 編成 및 運營”, 「學生의 多樣性과 創意性 伸張을 통한 人性教育의 活性化」, 教育部.
- 韓國教育學會(1991), 「教育學研究」, 제29권 제2호, 圖書出版 하우.
- 황응연(1995), “世界속의 韓國人 育成을 위한 人性教育”, 「세계속의 韓國人 育成을 위한 學校·家庭의 人性教育 革新方案」, '95 시·도 人性教育 擔當 教育專門職 研鑽會, 教育部.

〈論 文〉

- 康昔珠(1993), “高等學生의 抵抗知覺 및 그 原因分析 研究”, 碩士學位論文.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康英淑(1990), 「어머니의 養育態도와 子女의 性格特性과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高成休(1987), “家庭環境의 變인과 統制所在와의 關係分析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高雲進(1989), “國民學校의 學級風土와 學業成就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김갑식(1992) “家庭環境 變인과 歸因樣式과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韓國敎員大學校 教育大學院.
- 金瑞鎬(1992), “居住地域에 따른 家庭環境과 非行誘惑과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韓國敎員大學校 教育大學院.
- 金秀東(1985), “家庭環境과 中學生의 認知的·情意的 特性과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振鮮(1986), “家庭環境이 成就動機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金泰奉(1992) “人間關係 改善 集團經驗學習이 自我概念의 增進과 價值觀의 變化에 미치는 影響”,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박태오(1984), “家庭環境과 靑少年의 性格特性과의 關係 研究”, 碩士學位論文,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 宋昌允(1987), “父母의 養育態도와 攻擊性과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申鎬仁(1995), “21世紀를 對備한 靑少年 倫理·道德敎育의 方向”,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安珍植(1971), “靑少年의 家庭環境과 價值觀과의 關係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 劉亨根(1992), “父母의 養育態度 및 兒童의 人性特性과 學級內 社會性 水準과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韓國敎員大學校 教育大學院.
- 李淳珩(1988), “學校中心 地域社會敎育의 組織 模型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世宗大學校 大學院.
- 林 燁(1992), “父母의 養育態도와 兒童의 羞恥心과의 關係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韓國敎員大學校 教育大學院.
- 任英彬(1992), “擴大家族과 核家族間 子女의 人性和 子女가 知覺한 어머니 養育態度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韓國敎員大學校 教育大學院.
- 全順德(1989), “家庭環境과 性役割正體感 및 性役割 態度와의 關係 研究”,

-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추병완(1987), “콜버그 道德的 推論의 價值教育에의 適用 過程”,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 한미현(1990), “兄弟姉妹구조와 兒童이 知覺한 부모의 差別行動에 따른 兄弟姉妹 관계”,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 韓珍玉(1996), “初等學校 道德教育을 위한 콜버그 道德教育論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玄京勳(1988), “社會的 結束과 少年 非行의 關係에 관한 一研究”,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2. 西洋文獻

- Baranowski, M. (1982), “Grandparent-adolescent relation: Beyond the nuclear family”, *Adolescence*, 17.
- Bennett, W.(1980), “ The Teacher, the Curriculum, and Value Education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Vol 31, No.3.
- Bossard J. H. (1960), *The Sociology of Child Development*, N.Y. , Harper & Brothers publisher.
- Durkheim, E.(1956), *Education and Society*, New York : Free Press.
- Endsley, R. C. , Hutcherson, M. A. , Garner A. P. (1979), “Interrelation-ships among selected maternal behaviors, authoritarianism, and preschool children’s verbal and nonverbal curiosity” , *Child Development*, 50(2).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ffman M. L.(1975), “Moral internalization parental power and the nature of parent-child interaction” , *Developmental Psychology*.
- (1975), “Sex differences in moral internalization and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Hurlock, E. B.(1950), *Child Development*, New York : Mcgrow Hill.
- Kohlberg, L.(1969), “Stage & Sequence : The Cognitive -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 Kohlberg, L.(1978), “Revisions in the Theory & Practice of Moral

- Development". *New Direction in Child Development : Moral Development*.
- and Gilligan(1971). "The Adolescent as a Philosopher". *The Discovery of the Self in a Postconventional World*, Daedalus, Fall.
- and E. Turiel(1971).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in Lesser, G. S. (Ed). *Psychology and Educational Practice*, Glenview, IL : Foresman.
- Radke, M. J. (1946), "The Relation of Parents Authority to Childrens' Behavior and Attitudes", *University of Minnesota Child Welfare Monograph*, No. 22.
- Sears, R. R.(1965). *The Learning Theory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 Harper and Row.
- Symonds, P. M. (1949),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 Appleton Century Crafts.
- Tapp, J. L., & Levine, F. J.(1972). "Compliance from kindergarten to college : A speculative research not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 Turiel, E.(1977). "Conflict and transition in adolescent mor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5.

〈其他文獻〉

- 민중서림, 이회승 編(1982). "Anomie", 「國語大辭典」.
- 教育出版公社(1980). "天符經", 「The Encyclopedia of Korean History」.
- 教育科學社, 황정규 外 編(1988). 「The Dictionary of Education」.
- 培英社, 서울大師大教育研究所 編(1981). "中庸", 「教育學用語辭典」.

[Summary]

A Study on the Social Factors that have an Effective Influence on
Personality-Forming of the Sixth Grade Pupils of the
Elementary School

Lee, Soo-Bae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h, Jeong-Hoon Ph. D.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factors that have an effective influence on personality-forming of the sixth grade pupils of the elementary school.

This thesis found out how much children's environmental variables--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children's home, psycholog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children's home, psycholog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both children's school and society -- have an effective influence on personality-forming of the sixth grade pupils of the elementary school. And it also discussed consciousness, action, and aims of our young boys and girls by comparing, analyzing, investigating relationship between their variables, and was going to raise the older generation's interest and affection for them.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According to theoretical background as mentioned above I set up hypotheses as follow, an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se hypotheses, studied what were the social factors that have an effective influence strongly on personality-forming of the sixth grade pupils of the elementary school. Their ethic-moral consciousness is strongly influenced and their behavior is also easily modified in that period.

The hypotheses of study were as follow.

(1) The sixth grade pupils of the elementary school, in accordance with the distinction of sex, size of residence, school degree of parents, type of vocation, living level of parents, nuclear family, a double-income family will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2) The ethic-moral consciousness of the sixth grade pupils, in accordance with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children's home, will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3) The ethic-moral consciousnesses of the sixth grade pupils, in accordance with psycholog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both children's school and society, will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4) Through the verification of hypotheses as mentioned above, i) whether

or not significant of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children's home, ii) whether or not significant of psycholog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children's home, iii) whether or not significant of psycholog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both children's school and society, iv) the ethic-moral consciousnesses of the sixth grade 709 pupils were analyzed.

As above mentioned, summing up results of interaction with the social factors that have an effective influence strongly on personality-forming of the sixth grade pupils of the elementary school in Cheju-do, the ethic-moral consciousnesses of the sixth grade pupils of elementary school were satisfactory. Theirs were very moderate, affirmative, approached to ethic-moral consciousness of the older generation's.

Though they had various kinds of vulnerable points, the social factors that have an effective influence strongly on their personality-forming were dialogue, forbearance, and mutual interests between members of a family.

Specially mother's role among themselves has been very powerful.

In conclusion, home was environmental factor that have an effective influence strongly on personality-forming of theirs, and they were growing desirably as yet.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many social factors will become very important ones to influence their personality-forming in the future.

[附錄]

이 질문지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6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험이 아니며, 각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께서는 생각하면서 답을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이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성스런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이 수 배

-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하나만 골라 그 번호 위에(_이 있으면 그 _ 위에) “V” 표를 하십시오.

■ 각 질문의 끝 항목인 ‘그 외’ 는 자기가 대답하고자 하는 답이 없을 때 ‘그 외’ 를 골라 그 번호 위에 “V” 표를 하고, 쓸 내용이 있으면 () 안에 써 넣으십시오.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학교 소재지 : ① 제주시(또는 서귀포시) 도심지

② 제주시(또는 서귀포시) 외곽지

③ 남제주군(또는 북제주군) 읍·면 소재지나 출장소 소재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① 전문 사무직----- 의사, 약사, 법조인, 교사, 교수,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언론인 등

② 판매 서비스직----- 각종 수리 서비스업, 상업, 이용원, 미용원, 음식점, 호텔(여관) 경영, 조리사 등

③ 1차 산업----- 농업(과수원), 어업, 임업, 축산업 등

④ 2차 산업-----공업, 건설업, 광업 등

⑤ 비숙련 기능직----- 운전 기사나 미장이 등 단순 기능 노동자

⑥ 그 외 ()

① 아주 부자이다.

② 아주 부자는 아니나 절약하면서 필요한 물건은 모두 갖추고 알뜰하게 살고 있다.

③ 가난하게 살고 있는 편이다.

① 부모님과 여러 형제자매(나,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을 포함)가
같이 살고 있다.

② 할아버지와 할머니(두 분 중 한 분만 모셔도 됨)를 모시고 여러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다.

③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친척(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고모 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 다음은 여러분이 가정, 학교, 이웃간에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배워서 느끼거나 생각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질문 내용을 잘 읽고서 자기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골라서 그 항목 번호에 “√” 표를 하십시오.

7. 부모님께서서는 맞벌이 부부(부, 모 모두 직장에 나감)이십니까?

- ① 부, 모 모두 직장에 나가시거나 사업(장사)을 하신다.
- ② 아버지만 직장에 나가시거나 사업(장사)을 하신다.
- ③ 어머니만 직장에 나가시거나 사업(장사)을 하신다.
- ④ 그 외 ()

8. 가정에서 가족들끼리의 대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집니까?

- ① 아무 때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정도로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
- ② 보통 식사 시간에 대화를 많이 나눈다.
- ③ 부모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할 이야기만 한다.
- ④ 온 식구가 한 자리에 함께 모이기가 힘이 들고 어떤 날은 부모님 얼굴조차도 보기 어려워 대화하기가 어렵다.

9. 평소에 부모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기본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다져 예절바른 사람이 되는 것
- ②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업 성적을 높이는 것
- ③ 체력을 튼튼하게 단련시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 ④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강조하는 내용이 없다.
- ⑤ 그 외 ()

10.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 ① 나의 소질, 적성, 취미(흥미)에 적합한 직업
- ② 부모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나 갖고 있는 직업을 이어 받는 일
- ③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와 같은 사람
- ④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연예인, 운동 선수와 같은 사람
- ⑤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 ⑥ 어떤 직업을 갖든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11. 부모님과 함께 조상의 묘에 성묘(별초를 하며 산소를 돌보는 일)를 하러
가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조상의 묘소의 위치를 잘 알 정도로 여러 번 다녔다.
- ② 1~2 번 정도 다녔지만 조상의 묘소의 위치는 잘 모른다.
- ③ 성묘하러 다녀졌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 ④ 다녀 본 적이 없다.
- ⑤ 그 외 ()

12. 성묘를 다녀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번 문항의 예문 중
②, ③, ④, ⑤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 ① 내 자신이 성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가고 싶지 않아서
- ② 부모님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데려가지 않아서
- ③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면 가지 않아도 좋다고 하셔서
- ④ 조상의 묘가 너무 멀거나 다른 지방에 있어서
- ⑤ 그 외 ()

13.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길 가장 원하십니까?

- ①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 주셨으면 좋
겠다.

- ② 어려운 숙제 등 공부를 하는데 보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 ③ 식구들이랑 다 같이 나들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 ④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용돈이나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 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 간섭도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 ⑥ 그 외 ()

14.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② 내 부모님이니 그저 그렇게 여기고 있다.
- ③ 부끄러울 때가 많다. ④ 그 외 ()

☛ 위 (14)번 문항에서 ②와 ④라고 대답한 사람은 다음 (15)번과 (16)번을 하지 마시오.

15. 위 (14)번과 관련입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마음이 넓고 너그러우셔서
- ② 내가 하는 일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 ③ 학식이 높아 아는 것이 많으셔서
- ④ 사회적 지위가 높으셔서
- ⑤ 재산이나 돈이 많은 부자이셔서
- ⑥ 얼굴이 잘 생긴 멋쟁이셔서
- ⑦ 그 외 ()

16. 위 (14)번과 관련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울 때가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 ② 술주정이 심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쓰셔서
- ③ 학교도 별로 다니지 못해 무식하신 것 같아서
- ④ 직업이 보잘 것 없으시고, 돈을 버시지 못해 가난하다고 생각되어서
- ⑤ 외모가 못생기셔서
- ⑥ 기타 ()

17. 현재 학급에서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셔야 가장 좋겠습니까?

- ① 공부보다도 착한 마음과 행동을 갖도록 하는데 애를 써 주시는 분
- ② 모든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 주시는 분
- ③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며 학력 향상을 강조하시는 분
- ④ 매우 엄격하신 분
- 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 주시는 분
- ⑥ 그 외 ()

18. 자기의 성격이나 옷차림, 언어 및 행동 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선생님 ④ 친구
- 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웃의 형이나 언니
- ⑥ 연예인(가수, 텔런트, 개그맨 등)
- ⑦ 그 외 ()

19.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어른들이 많은데, 그 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 ④ 어머니 ⑤ 형이나 누나(오빠나 언니)

⑥ 선생님 ⑦ 그 외 ()

20. 위 (19)번 문항과 관련입니다. 그 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① 항상 나를 이해하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어서
- ②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서
- ③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간섭을 하지 않아서
- ④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나 대신 그 일을 처리해 주어서
- ⑤ 용돈을 많이 주어 사고 싶은 것을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어서
- ⑥ 그 외 ()

2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본 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이나 누나(오빠나 언니) ④ 선생님
⑤ 이웃에 사는 선배(중·고등학생이나 불량한 사람)
⑥ 그 외 ()

22. 앞 쪽에 있는 (21)번 문항과 관련입니다. 가장 본 받고 싶지 않거나 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키기만 해서
- ② 내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그 과정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에 앞서 욕부터 마구 하니까
- ③ 나를 위협해 남의 물건을 훔치게 하는 등 나쁜 일을 시켜서
- ④ 용돈을 잘 주지 않아 친구들로부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⑤ 나에게 냉정하고 무관심하며 차별 대우하는 것 같아서

⑥ 그 외 ()

23. 자기의 소질과 취미, 적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학교 성적과 평소 자기 생각을 기초로 했을 때, 장차 어떤 직업(일)을 갖기를 원합니까?

① 전문 사무직----- 의사, 약사, 법조인, 교사, 교수,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언론인 등

② 판매 서비스직----- 각종 수리 서비스업, 상업, 이용원, 미용원, 음식점, 호텔(여관) 경영, 조리사 등

③ 1차 산업-----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

④ 2차 산업----- 공업, 건설업, 광업 등

⑤ 비숙련 기능직----- 운전 기사나 미장이 등 단순 기능 노동자

⑥ 그 외 ()

24.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식구 모두 한 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웃어른을 모시고 살면 효도도 하고 가정의 질서도 잡혀서 좋다.

②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역사를 배우는데 도움이 커서 좋다.

③ 요즘은 바쁜 시대라서 모시기도 어렵고 세대차가 크기 때문에, 따로 사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

④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 분이라서 자유스러운 현대식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시니, 양로원과 같은 곳에서 그분들 또래 끼리 사시는 것이 좋다.

⑤ 그 외 ()

■ 다음의 질문 (25)~(29)의 내용은 여러분 자신의 일상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잘 지키는 정도를 솔직하게 오른쪽 해당란(____)에 “V” 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 i) (25)번의 질문에 ‘그렇다’ 라고 응답하려면 ____①의 ____에 “V” 자로 표시하고,

ii) (29)번의 질문에 ‘중간이다’ 라고 응답하려면 ____②의 ____에 “V” 자를 표시하면 됨.

〈예시〉

① 그렇다 ② 중간이다 ③ 그렇지 않다

25. 웃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____① ____② ____③

26.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지 않아 친
구들간에는 의리있는 사람으로 ____① ____② ____③
통한다.

27. 누가 보든 안보든 교통도덕을 잘
지킨다. ____① ____② ____③

28.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길가
에 가래침 뱉지 않기 등 공중도덕 ____① ____② ____③
을 잘 지킨다.

29.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잘 정리정
돈한다. ____① ____② ____③

30. 장차 어른이 되면 부모님을 모셔서 살겠습니까?

- ① 내 부모님이시니까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모셔서 살겠다.
- ② 그 때 가서 결정하겠지만, 부모님과는 세대차가 있어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므로 서로의 편의를 위해 따로 사는 것이 좋겠다.
- ③ 무조건 따로 살겠다.

31. 방과 후나 일요일(또는 공휴일)에 자기의 여가 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냅니까?

- ① 설거지, 청소, 빨래 등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 드린다.
- ② 독서, 서예, 악기 연주 등 취미 활동을 한다.
- ③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본다.
- ④ 전자 오락을 한다.
- ⑤ 친구들과 어울려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 ⑥ 그 외 ()

32. 용돈을 주로 어떤 데에 쓰고 있습니까?

- ① 어렵고 불우한 친구들을 도와 주는데 사용한다.
- ② 책이나 학용품 등 주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한다.
- ③ 취미 생활과 오락을 하는데 많이 사용한다.
- ④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물건들을 구입한다.
- ⑤ 군것질을 많이 한다.
- ⑥ 그 외 ()

33. 장차 어른이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 ①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자기 능력껏 올바르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 ② 열심히 연구하는 전문인(학자, 교육자, 기술자 등)
- ③ 정치가나 장군 등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 ④ 남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 지위에서 앞서는 사람
- ⑤ 그 외 ()

감사의 글

學問에는 王道가 없음을 體驗했습니다.

그 동안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지도해 주셔서 부족함을 많이 채워 주신 허정훈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걱정해 주신 고성준 교수님, 안창범 교수님, 강근형 교수님, 장원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教育研究法을 강의해 주셔서 본 논문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신 양방주 교수님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김태선 선배님과 친구 태수 大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고, 홍태준, 고택권, 이충규, 김동윤, 이광희, 고재희, 김진선, 고운진, 홍성진, 박영선, 함석중, 박종익, 고영탁, 우광훈, 이안열, 송옥렬, 김은옥, 김인순, 강태심, 함정순, 박영숙, 함보경, 서복순, 안혜성, 부정옥, 김은숙, 오선에 선생님들의 고마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陰陽으로 많은 성원을 주신 고찬식 과장님과 홍성숙 장학관님, 부광도 장학관님, 그리고 전공 선배님이신 이경윤 장학관님과 강병준 총무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무딘 남편을 자상하게 도와 준 하나 엄마,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와 은준이에게도 고마움과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1997년 8월 이 수 배